

#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

- 18세기 東萊 在地畫員 卞璞의 官需繪畫 연구 -

이 현 주\*

## 〈목 차〉

- I. 머리말
- II. 在地畫員의 개념과 官需繪事 활동
- III. 朝鮮後期 在地畫員 卞璞의 역할
- IV. 在地畫員 卞璞의 官需繪畫
- V. 맺음말

## 국문요약

이 논고는 조선후기 지방에서 활동하던 在地畫員의 개념을 규정하여 그들의 官需繪事 활동의 영역을 살펴보고, 재지화원의 대표적 인물로서 18세기 동래부에서 관수회사업무를 수행한 변박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화풍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후기 궁중화원은 도화서화원과 더불어 정조년간 자비대령화원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띠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도화서화원이나 자비대령화원을 차견하는 법제가 시작되는 18세기부터 지방에서도 이른바 도화서차견화원과 재지화원으로 그 양상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지화원은 자신이 속한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대체로 그 지역의 軍營 또는 지방관아에 근무하면서 官需繪事 업무를 수행하는 화원을 의미한다.

18세기 동래부의 재지화원이었던 변박은 동래부 장군청의 천총, 별군관청 행수와 군기감관, 수첩청의 별장, 교련청의 기지구 기수 초관직을 역임하면서 동시에 여러 관수회화를 제작하였다. 대표적 작품인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 전투를 그린 것으로 그 배경이 되는 지리적 위치가 명확히 묘사되어 있고, 충절의 역사적 진실과 비장함을 반영하고 있다. 변박의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마지막 기년작품인 <왜관도>는 동래부 교린정책의 중심지인 왜관의 정경을 조감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려 왜관의 배치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수기법에 있어 진경산수화풍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어 정선의 화풍이 지방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래독진대아문>과 <사처석교비>의 제작정황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양반이 담당 하였던 현관, 주련 등의 제작영역이 지방의 관수회사일 경우 필력이 뛰어난 화가들에게 다소 일임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지회원의 경우 지역토착인물인데다 도화의 기초단계부터 중앙의 화풍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나 구성력에서 중앙의 작품에 비해 그 격이 다소 떨어질지는 모르나 근무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여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고증함에 있어서 규범화된 범주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묘사를 시도하는데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재지회원에 관한 연구는 지방의 회화제작자라는 큰 틀 속에서 도화서차견회원과 더불어 지방회화제작자의 이원화 양상을 이루는 것으로, 지방화풍이 형성되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지방회원 연구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재지회원과 그 작품의 발굴, 도화서차견회원과 상관계, 중앙화단 화풍의 지방 확산 양상을 규명하는 연구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주제어 : 도화서차견회원, 재지회원, 관수회사, 변박, 동래부순절도, 부산진순절도, 왜관도, 동래독진대아문, 사처석교비

## I. 머리말

조선시대의 圖畫署는 御眞제작과 儀軌 및 궁중행사도, 繪畫式 地圖제작 등 宮中과 朝廷의 기록 등 일체의 궁중繪事に 관한 주문을 담당하였다. 정조년간부터 시작된 자비대령화원제도의 시작으로 18세기부터 궁중화원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각 지방의 관·군영에 화사군관을 파견하는 제도가 성립된 이후부터는 중앙화원들의 활동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 지역의 감영과 병영, 수영 등에만 화원을 배속하는 규정이었으며, 도화서 인원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위통치기관까지 그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지방 수령은 중앙의 도화제작명령을 수행하고 읍치 내에 필요한 회화를 제작하기 위해 자체적인 해결책이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의 의뢰가 오늘날 사진의 대용인 기록화였음을 생각한다면 지방에서도 효율적인 지역통치와 방어를 위한 군영의 진지도나 지형도, 공사의 준공과 행사의 기록성 등에 관한 회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지방인들의 병선, 무기, 기구의 설계도 및 모형도가 필수적이었고, 소송이나 판결에서는 容貌疤記, 현상수배, 檢屍圖 등이 첨가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정황이나 설명을 圖畫·圖形으로 보완할 수 있는 화원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선시대 화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궁중화원 연구에 집중되어져 도화서와 규장각소속의 화원조직과 활동에 관해서는 상당히 규명된 반면<sup>1)</sup>, 지방조직 내에서의 화원에 관한 존재는 진작부터 조금씩 알려져 왔으나 본

1) 도화서 화원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희순, 1946, 『李朝의 圖畫署雜攷』, 『朝鮮美術史研究』서울신문사; 金元龍, 1961, 『李朝의 畫員』, 『郷土서울』1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59~71쪽; 윤범모, 1978, 『조선전기 도화서 화원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1982, 『조선시대 도화서제도의 성립』, 『동국사학』제17권, 83쪽~104쪽; 金東遠, 1980, 『朝鮮王朝時代 圖畫署와 畫員-法典 規程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취준, 1988, 『朝鮮王朝時代의 畫員』, 『韓國文化』9,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47~177쪽; 姜寬植, 1995, 『眞景時代後期 畫員畫의 視覺的 事實性』, 『潤松文華』49, 韓國民族美術研究所, 49~108쪽; 박정혜, 1995, 『의례를 통해 본 조선시대 화원』, 『미술사연구』제9호, 203~290쪽, \_\_\_\_\_, 2004, 『대한제국기 畫院제도의 변모와 畫員의 운용』, 『근대미술연구』국립현대미술관, 88~117쪽; 金芝英, 1994, 『18세기 화원의 활동과 화원화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순, 『명분인가 실재인가-조선 후기 궁중회화의 양상과 기능(1)』,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항상 안취준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권, 한국 및 동양의 회화, 사회평론사, 132~159쪽; \_\_\_\_\_, 2006, 『畫員과 宮中繪畫-조선 초기 궁중회화의 양상과 기능(2)』, 『강좌미술사』26권, 헤사 문명대학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일반회화, 한국불교미술

격적인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현재 지방에서 활동한 화원으로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卞璞이다. 변박은 동래부 사람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이 아닌 在地人 혹은 在鄉人이다. 다시 말하면 도화서에서 지방군·관청에 파견시킨 이른 바 圖畫署差遣畫員이 아닌 在地畫員 혹은 在鄉畫員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조직에서 활동한 화원가운데 도화서차견화원이 아닌 재지 화원의 한 사람으로 변박을 그 사례로 삼아 여타 재지화원들의 존재구명과 활동에 관하여 부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미 진작부터 변박의 생애나 작품에 관해서는 역사적·미술사적 연구가 있어 왔다. 이태호가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에 관한 연구에서 변박과 함께 통신사행을 다녀온 김유성의 작품과 더불어 변박의 그림이 鄭澈(1676~1759)의 진경산수화계통인 것으로 주목한 이후<sup>3)</sup> 이미야는 부산경남지역 서화가 중 한명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고<sup>4)</sup> 홍선표는 17·18세기 韓日間 繪畫交涉과 朝鮮後期通信使 隨行畫員에 관한 연구에서 그의 생애와 작품을 언급하면서 그의 재능과 일본에서의 활약상을 알려주었고, 지방화원으로서의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하였다.<sup>5)</sup> 이후 김동철이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사학회(구 한국미술사연구소), 1015~1044쪽; 朴秀嬭, 2005, 『朝鮮後期 開城 金氏 畫員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훈상, 2005, 『朝鮮時代 畫員과 寫字官, 그리고 兩班出身 書畫家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구도』, 『미술사학연구』246,247호, 117~137쪽. 자비대령화원에 관한 연구는 姜寬植, 1994, 『朝鮮後期奎章閣의 差備待令畫員制』, 『濶松文華』47, 韓國民族美術研究所, 50~97쪽; \_\_\_\_\_, 1997, 『朝鮮末期 奎章閣의 差備待令畫員』, 『美術資料』第58號, 國立中央博物館, 102~137쪽; \_\_\_\_\_, 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上)(下), 돌베개; \_\_\_\_\_, 2002, 『조선후기 화원회화의 변모와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미술사학보』제17권, 미술사학연구회, 5~32쪽 등

2) 金芝英, 1994, 『18세기 畫員의 활동과 畫員畫의 변화』, 『한국사론』32, 서울대 국사학과, 1~68쪽; 金相燁, 1996, 『南里 金斗樑의 作品世界』, 홍익대학교학위논문; \_\_\_\_\_, 1999, 『南里 金斗樑의 作品世界』, 『미술사연구』11, 69~96쪽; 홍선표, 2004.4, 『朝鮮時代 繪畫史年表』, 『朝鮮時代 繪畫史論』, 문예출판사, 636쪽; 홍선표, 1999, 『《耽羅巡歷圖》의 기록화적 의의』, 『朝鮮時代 繪畫史論』, 文藝出版社, 483~494쪽; 이현주, 2007, 『朝鮮後期 統制營畫員 研究』, 『石堂論叢』제39집, 289~327쪽; 이훈상, 2008.4, 『조선후기 지방과견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로컬리티의 인문학 콜로키움 발표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_\_\_\_\_, 2008, 『조선후기 지방과견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전국역사학대회』미술사부, 516~523쪽. 특히 홍선표는 일찍부터 동래를 무대로 일본의 구무품을 제작하며 활동한 무명화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구무품으로 도일되어 일본에 소장된 작품 분석을 통해 무명화가들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홍선표, 1997,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11호, 미술사연구회, 3~22쪽.

3) 이태호, 1984, 『朝鮮後期の 眞景山水畫 研究』, 『한국미술사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2쪽.

4) 이미야, 1993, 『釜山·慶南地域 書畫家에 대한 一考察』, 『박물관연구논집』2, 부산시립박물관, 207~214쪽.

변박의 생애, 경력, 활동 등을 문헌을 통해 밝히고 정리하였으며,<sup>5)</sup> 잘못된 작품제작연대를 바로잡고 작품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김동철이 언급한 것처럼 변박 작품에 관한 미술사적 고찰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이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작품 연구가 일부 진척되기는 하였으나 개별 작품의 역사성에 집중되어 있어<sup>7)</sup> 재지화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규정과 그 일원으로서 변박의 활동 및 작품 양식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도화서차견화원과 대별되는 在地畫員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들의 官需繪畫 활동의 영역에 관해 살펴 본 후, 재지화원의 대표적 인물로 18세기 東萊府에서 활동하던 변박을 중심으로 武任職으로서의 그의 업무와 재지화원으로서의 관수회화활동을 살펴보고 더불어 두 점의 순절도와 왜관도 등에 관하여 양식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재지화원 연구의 단초를 열고 18세기 재지화원이었던 변박의 화풍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II. 在地畫員의 개념과 官需繪事활동

### 1. 在地畫員의 개념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들은 禮曹 京官職에 속하면서 도화서에서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 외에 규장각, 또는 兵曹소속의 충무위, 훈련도감 등에 차출, 파견, 순환 등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즉 중인신분으로 궁궐이나 서울인근에서 활

5) 홍선표, 1979, 『17·18世紀의 韓日間繪畫交涉』, 『考古美術』143·144호, 22~46쪽 : \_\_\_\_\_, 1995, 『조선 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구 考古美術), Vol. 205, 한국미술사학회, 5-19쪽 : \_\_\_\_\_, 1997, 앞의 논문, 3~22쪽 : \_\_\_\_\_, 1998,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畫員의 繪畫活動』 『미술사논단』, Vol.6, 187~204쪽.

6) 김동철, 2003, 『館閣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Vol.19, 한일관계사학회, 47~71쪽.

7) 池內宏, 1936, 『東萊의 安樂書院과 釜山東萊二城 陷落圖』, 『靑丘學叢』26 ; 許善道, 1963년, 『殉節圖와 民族正氣』, 『國防』제133·134호 ; \_\_\_\_\_, 1988, 『壬辰倭亂 東萊(釜山)에서의 여러 殉節과 그 崇揚事業에 대하여(上)-<釜山鎮殉節圖> <東萊府殉節圖> 및 <釜山鎮·多大鎮殉節圖>를 중심으로』, 『한국화논총』10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정길자, 2000, 『송상현 공 종가 소장 東萊府殉節圖 研究』, 『대학발전연구 논문집』제20집, 부산경상대학, 148~208쪽 ; 권소영, 2003, 『육군박물관 소장 『東萊府殉節圖』 연구』, 『사서화류 특집』 학예지 제10집, 육군박물관, 1~46쪽.

동하는 것이다. 또한 도화서는 遞兒職임으로 조선시대를 거쳐 지방의 현감, 찰방 등의 직위로 지방으로 파견되는 예도 드물지 않았다. 金弘道는 1784년 1월부터 1786년 5월까지 약 2년5개월간 경상도 안동 安奇道찰방을 지낸 후 도화서로 복귀하였다. 이후 1791년 가을 정조어진제작에 동참화사로 참여하여 그 포상으로 1791년 12월 중인신분으로 충청도 延豊현감에 제수되어 3년간 근무하였다. 정선의 경우에도 1721년 46세부터 1726년 51세까지 河陽현감으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1740년 65세에 陽川현령에 제수된 후 1745년 70세에 인왕산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5년간 근무하였다. 당시 양친은 경기도의 抱川, 果川, 連川보다 큰 규모의 龍仁, 始興과 맞먹는 고을의 현령으로 종5품직으로 승진한 셈이다. 金喜謙(1710~?)과 卞相璧(1730~?)도 각각 泗川현감과 谷城현감을 지낸 바 있으며, 金得臣의 아들인 金建鍾(1781~1841)은 羅州監牧官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감이나 찰방 등의 지방직을 제수받는 것은 도화서화원에게 주어지는 褒貶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례로, 감영이나 군영내의 군직에 파견되어 화원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본연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화원의 직제에 관해서는 兵曹의 外衙前 임시기구인 都監, 지역에 설치된 兵營, 統營, 水營 등과 각 지역 武任職廳과 관련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8)</sup>

지방에서 근무하는 외아전 소속 화원들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 도화서에서 파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토착인물로 지역에서 직접 차출하는 경우이다.

먼저 도화서차견화원은 도화서 화원이나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들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파견시킨 것이다.<sup>9)</sup> 18세기 도화서차견화원 제도가 법전에 명시된 이후 여러 읍지 및 군지에 확인되는 화사에 대한 규정은 대략 다음 <표1,2>와 같다.

<sup>8)</sup> 이현주, 2007, 앞의 논문, 294~301쪽.

<sup>9)</sup> 필자는 규장각 자비대령화원도 도화서에서 차견된 것으로 문헌 용어를 인용하여 ‘도화서차견화원’으로 보았고, 이훈상은 ‘지방파견화원’으로 지칭하였다.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1> 18세기 지방군제 내 화사 배치기록

道	軍營	書師記錄	年代	文獻
慶尙道	統制營	書師軍官一人	1757(英祖33)~ 1765년(英祖41)	『輿地圖書』慶尙道 統制營 官職
	監營	書師軍官 元德世	1751년	『嶺營日記』
	左兵營	書師一人	,	『輿地圖書』慶尙道左道兵馬節度營官職
	右兵營	書師軍官一人	,	『輿地圖書』慶尙道右道兵馬節度營官職
	水營	書師軍官一人	,	『輿地圖書』慶尙道 水軍節度營 官職
全羅道	左水營	水營節度使一員守城中軍一人 英宗大王癸巳水使金永綬狀 聞創設帶率軍官九書師一漢學一倭學一虞候一員	英祖癸巳는 1773년	『邑誌』全羅道 順天府邑誌 左水營鎮[在府東麗水面]官職
		需米四百石內八十八石六斗虞候料二百三十石裨將書師漢學倭學將校漆吏料資一百三十一石九斗 米十二石稿草價本府內三面結夫中雜役米每夫一斗式依例劃來逐年不同	,	『邑誌』全羅道 順天府邑誌 左水營鎮[在府東麗水面] 俸廩
忠清道	監營	書師 自禮曹差送二十四朔交遞	,	『輿地圖書』忠清道 觀察營 官職
	兵營	書師 自禮曹差送二十四朔交遞	,	『輿地圖書』忠清道 兵馬節度營 官職
	水營	書師一人自禮曹差來二周年交遞	,	『輿地圖書』忠清道 水軍節度營 官職
黃海道	監營	書師裨將一人	,	『輿地圖書』黃海道 監營 官職
	兵營	書師一員	,	『輿地圖書』黃海道 兵營 官職
	水營	書師一人	,	『輿地圖書』黃海道 水營 官職
平安道	監營	朝鮮人物俗畫二張畫出或着紗帽或着巾或着冠或着笠子樣數三人必爲填彩以來則行祀時掛置壁上以爲懋慕朝鮮之意求請而在京時全然忘却今始言托云故分付兵營書師軍官刻期圖寫追送於勅行所到處云云		『日省錄』1786年9月18日, 『伴送使 李在簡平安監司 趙竣別軍職李儒敬各以勅行形止馳啓』
咸鏡道	監營	書師一員	,	『輿地圖書』咸鏡道(關北邑誌)觀察營官職
	南兵營	摠數三百八十三石一斗九升五合二勺每年秋捧造米七十二石五斗一升七合三勺田米二百七石二斗八升五合三勺太一百三石八斗九升二合六勺別置會錄春秋各祭禮飯米及兵營軍官九員書師一員畜養一員知穀官一員虞候軍官二員奴馬料拉甫下 <sup>10)</sup>	,	『輿地圖書』咸鏡道(關北邑誌) 咸鏡南道 北青府 邑誌 田稅

10) 총수 383섬1말9되5홉2작, 매년가을 捧造米 1되7홉3작, 田米207섬2말8되5홉3작, 太(콩)103섬8말9되2홉6작, 별도로 모아 기록하여 춘추의 각 제사(향교제사)에 술과 밥과 쌀 및 병영군사9명과 화사1명, 심약1명, 지곡관1명, 우후군관 2명의 일 샅을 아울러 함께 준다.

<표 2> 19세기 지방군제 내 화사 배치기록

道	軍營	書師記錄	年代	文獻
慶尙道	監營	營庫 每朔上下 軍官八員寫畫二員,各需米二石,米一石六斗一升,太九斗,眞末三升,眞油四升,塩三升,藿十午兩,北魚六束,小豆六升,廣魚四尾,餅價錢四兩五錢.	1870년 이후	『嶺南監營事例』,『各司躋錄』51 (慶尙道補遺篇3)
	慶尙左水營	事例 每朔給代定式 軍官九員,寫字一員,書師一員,各風和每朔六兩,風高每朔四兩.	1894년 (고종32)	第一冊 嶺南左水營附事例 『嶺南營誌』,『各司躋錄』52 (慶尙道補遺篇4)
	慶尙左兵營	官職 書師一員,寫字官一員,營吏五人,外邑來記官三人.	1894년	第二冊 嶺南左兵營附事例 左兵營誌,『嶺南營誌』,『各司躋錄』52 (慶尙道補遺篇4)
		○爲牌報事 本營書師某 今月今日 意外身死是如乎 京人之以王事各歿外方者 駕牛題給 載在通編乙俄于 茲以牌報爲去乎 返樞時駕牛題給之意 京畿忠清慶尙等道良中 發關分付行下云云 ○報備邊司 爲相考事 本營書師某 今月某日 意外身死是如乎 其代卽爲差送爲遺云云 右移禮曹	1804~1844년	『書師身喪報牌式』,『營總』(乾),
慶尙右兵營	兵庫一年應下秩 .....軍官八員,審樂書師寫字官.	1894년	第二冊 嶺南左兵營附事例 (右兵營)營誌,『嶺南營誌』,『各司躋錄』52 (慶尙道補遺篇4)	
全羅道	巡營	巡營審樂高運弼,瓜十五朔十月初八日到, 檢律崔錫運 瓜十五朔, 癸亥二月初七日政除,三月初七日到, 寫字李漢明,癸酉九月 日差. 書師趙在興 甲戌十二月二十一日到	1875년 (甲戌는 1874年)	『道內官案』,『各司躋錄』54(全羅道補遺篇2)
	兵營	兵營審樂玄必健 甲戌十二月初六日到, 書師	"	『道內官案』,『各司躋錄』54(全羅道補遺篇2)
咸鏡道	監營	咸鏡監司趙德潤狀啓以爲釋王寺有頗處詳細登聞事命下矣逐細看審條列報來之意分付地方官安邊府使 李愚在處臣營書師軍官李有珮 亦爲發送使之眼同詳審圖形以來矣卽到該府使牒呈內卽爲馳進本寺與營書師同爲看審則仁智察六間龍飛樓	1810년	『日省錄』1810年 9月 23日 『命釋王寺重建時顯助之方令廟堂詳議菓處』

<표1,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감영 및 군영에는 도화서에서 오래도록 성실히 근무한 회원 1명을 선출한 후 각 감영 및 군영에 화사군관으로 2년간 배속하였다. 여기에는 다년간의 경험치를 가진 사자관 1명, 예조에서 주관하여 시험으로 선출한 심약, 통역 각 1명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통례였다. 오랜 경험을 가진 노년의 회원들이 파견되는 예가 많았는지 한 병영의 각종 문서규식가운데에는 화사가 썸 내에서 사망했을 경우 비변사에 올리는 문서와 예조에 후임자를 요망하는 양식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확인되는 도화서차견회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화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이거나 자비대령회원으로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자 또는 알려진 회원집안의 일원들이었다. 일례로 1874년 12월 21일 전라감영에서 도입한 조재홍은 도입 전후에는 규장각의 자비대령회원이었다. 1870년 자비대령회원으

로 차정된 이후, 1872년부터 祿取才에 참여하여 1873년, 그리고 1877년부터 1880년 6월까지 녹취재에 참가하였다.<sup>11)</sup> 그 기간동안 그는 太祖, 元宗影幀의 移模 과정을 수록한 『御眞移摸都監廳儀軌』(1872)에 趙重默, 朴基駿, 白殷培, 劉淑, 李昌鈺, 朴鏞夔, 朴鏞薰, 安建榮, 徐斗杓와 함께 참여하고 實官에 調用하라는 시상을 받은 후 1873년 1월 7일 도화서 화원 白俊煥의 代任으로 祿官자리에 임명받았다.<sup>12)</sup> 그리고 그 해 6월 세 차례에 걸친 녹취재에서 1등을 함으로써 정6품 司果의 祿官에 제수되었다. 그런 다음 1874년 12월 전라감영에 차견되었고, 법전의 규정을 감안할 때 약 2년간 전라감영의 화사군관으로 재임한 이후 규장각으로 돌아와 다시 자비대령화원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1877년 녹취재 시험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후 副司果에 차정되었고 1894년에는 朴鏞夔, 趙錫晋과 함께 의례청 패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sup>13)</sup> 또한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90),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1895),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1895) 제작에 참여하였고, 太祖, 肅宗, 英祖, 正祖, 純祖, 文祖, 憲宗 등 7祖의 어진모사 과정을 수록한 『影幀摸寫都監儀軌』(1900-1901), 고종 51세 때의 어진과 황태자 29세 때의 睿眞의 圖寫과정을 수록한 『御眞圖寫都監儀軌』(1901-1902)제작에도 동참하는 등 의례제작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조재홍이 감영의 화사군관으로 파견 이전에 녹취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점이나 화원으로서 최고의 위치인 정6품 체아직에 제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차견은 祿策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누적되는 失職의 폐단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포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같은 추정은 수많은 화원을 배출한 양천 허씨 집안의 허우와 허준, 강릉 함씨집안으로 교수 함제건의 아들로 기해사행의 수행화원이었던 함세휘, 함제건의 외손인 김두량, 백천 조씨 집안인 조정벽, 신평 한씨 집안으로 감목관을 지낸 한중유, 밀양 변씨 집안으로 변상벽의 조카인 변광욱, 前主簿 이명규, 한중유의 사위인 김수권 등 통제영의 화사군관들의 경력에서도 재차 확인된다.<sup>14)</sup> 다시 말

11) 高宗代 1870년 10월19일 差備待令畫員으로 差定, 祿取才최초참여 1872년6월12일, 최종참여 1880년6월28일, 참여년도는 1872-1873, 1877-1880년. 강관식, 1997, 『조선말기 규장각의 자비대령 화원』, 미술자료58권, 국립중앙박물관.

12) 『日省錄』 高宗九年五月四日條 : 『국역승정원일기』 高宗十年一月七日條.

13) 『內閣日曆』 高宗十年六月十九日條. ‘行差備待令畫員寫字官來秋等祿取才...都計劃榜七分趙在興司果四分半徐斗杓司正四分朴榮選朴鏞夔三分半張東赫’ : 『內閣日曆』 高宗十四年三月二十二日條. ‘畫員祿取才都計劃榜十分趙在興朴鏞薰七分安道榮六分徐斗杓五分...’ ; 『국역승정원일기』 高宗三十一年二月十七日條.

하면 중앙에서는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 시각적 데이터가 필요했고 실력있는 회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지방파견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그런데 이들의 파견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감영은 서울과 가까운 이유인 듯 중요한 거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되는 사례는 보이지 않으며, 통제영을 비롯한 각 지역의 감영과 병영, 수영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법전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하위 기관에서도 화사의 업무는 필요했으나 중앙에서의 파견인원이 충분치 않았으며, 경제적 부담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쉬운 대로 하위기관의 화사 업무는 각 통치관할 감영이나 군영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화서차견화원이 없는 지역에는 그림에 능한 그 지역토착인물을 지방관청에서 근무하는 화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른 바 ‘在地畫員’이다. 재지화원은 在鄉畫員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16)</sup> 애초 중앙에 소속되어 근무지를 배정받는 회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속한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대체로 그 지역의 軍營 또는 지방관아에 근무하면서 官需繪事業무를 수행하는 화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관서에 근무하는 외아전 인원들이 지역토착세력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관례에 미루어 본다면 회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一例로 동래부의 회원인 변박과 李時訥을 들 수 있다. 변박은 東來府 武廳의 각종 무임직을 역임하면서 여러 기록화를 제작하였고 1834년 임진전란도(부산진·다대진순절도)를 그린 이시눌은 별군관청 동래부군기감관의 직책이자 회원이었다. 그들은 동래부 사람들이며 동시에 무임직의 경력을 가지는 공통점을 가진다. 武廳에 소속되어 도화 업무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17)</sup> 감영과 군영이하의 하위기관에서 회원직제를 따로 두지 않고 무임직과 겸

14) 통제영화원의 구성원과 그 경력 및 집안에 관해서는 이현주, 2007년, 앞의 논문 : 이훈상, 2008,4. 『조선후기 지방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로컬리티의 인문학 콜로키움 발표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참조.

15) 이훈상은 회원들의 지방파견에 대해 1704년 처음 시행된 후 1895년 폐지되기까지 약 1729명이 21개의 지방군체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같은 제도는 회원들의 경제적 안정 뿐 아니라 화원가문의 결속과 사회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훈상, 2008,4. 앞의 논문, 15쪽.

16) 일반적으로 여기서의 ‘在地’ ‘在鄉’의 의미는 鄉吏, 鄉匠에서의 ‘鄉’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리고 여러 문헌에서 도화서를 비롯하여 繪事業무를 직업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畫工’ ‘畫師’ ‘畫史’ ‘畫士’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畫員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겠다.

17) 충렬사 소장의 水操圖12曲屏風(19세기)은 통제영 파총으로 근무하던 鄭孝峴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원도 越城萬戶 田舍—이 울릉도의 지형을 그려 올린 예 등 武任職으로 회원 업무를 행하는 경우를 몇몇 찾아볼 수 있다. 도화서차견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통제영에

직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신속한 업무분장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在地畫員의 官需繪事활동

현재 알려진 재지화원은 18세기 동래부에서 활동한 변박과 이시눌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조선초기부터 지방에서의 화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또한 재지화원이 존재했고 활동했다는 기록은 문헌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도화서차견화원의 제도확립과 시행이 18세기 초엽으로 볼 때 그 이전의 지방감영, 병영, 수영뿐 아니라 하위통치기관에서의 재지화원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일찍부터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부모에 대한 효행이나 지아비에 대한 애도로 그 형상을 그려 제를 올리기도 하였고, 각 고을 사당이나 서원에 조상이나 성인의 화상을 제작하여 봉안하여 왔다. 또한 부모나 지아비의 초상을 그린 후 제를 올리는 예도 빈번하였다. 1471년 전라도 전주에 사는 朴有誠은 부모가 죽자 양친의 眞影을 그려 모셨고, 익산사람 曹敏의 처는 지아비가 죽은 후 그 형상을 벽에 걸고 조석으로 분향하였다.<sup>18)</sup> 1526년 평안도 가산군에 살았던 方權의 아내는 남편의 화상을 벽에 걸어 두고 조석으로 제를 올리며 슬퍼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초상을 그려 모시는 예가 빈번해지면서 폐단도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을 부임한 목사가 우매한 백성들을 유혹하여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사당을 세우고 화상을 그려 남기자 상소를 올려 징계한 사건이 일례이다.<sup>19)</sup>

또한 1599년 11월 평안도 成川鎭에서 고려시대 상장군 鄭顥와 추밀원부사 崔椿命의 충의와 절개를 후세에 전하고자 화사에게 명하여 그 자취를 그려 남기게 한 예<sup>20)</sup>는 초상화와 더불어 역사화의 감계적 효과를 인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재지화원들은 역사·감계화나 초상화 이 외에도 지방수령의 명에 의해 경치가 빼어난 풍경을 즐기거나 洛城이나 傍會를 기념하는 계획장면도 그렸다.

과견된 화원들의 직함은 화사군관이며, 1786년 '평안도 병영의 군관인 화사에게 인물속화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日省錄』正祖10年(1786) 9月18日八. 이훈상은 지방과견화원이 군관의 직무를 겸한 상황과 그 연유를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이훈상, 2007, 앞의 논문 참조

18) 『朝鮮王朝實錄』成宗2年 6月23日(甲子), 中宗21年, 7月25日.

19) 『朝鮮王朝實錄』肅宗24年 10月 6日 威鏡監司 李東郁이 安州牧使시절에 愚民에게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어 生祠를 세우고 畫像을 남겼는데 이후로도 부임하는 고을마다 빈번히 生祠를 설치하는 등 폐단이 일자 1698년 外方에 生祠를 세우는 일을 금하는 논의가 있었다.

20) 鄭述, 『寒岡集續集』5卷 序 <成川鎭武學祠祭會圖序>

관동의 경치를 배경으로 모인 <關東量田契會圖>, 함경도의 토관직들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기념하여 모인 <咸鏡道野人驅逐將士契會圖>, 충청도에서 성 쌓는 일을 완공한 후 환영루에 모여 축하하는 광경을 그린 <環瀛樓契會圖><sup>21)</sup> 등은 16세기에 그린 것으로 시기적으로 도화서차견화원이 법률로 규정되기 훨씬 이전에 제작된 것이다. 17세기 제작된 안동지역 과거급제자들의 모임인 <安東榜會圖><sup>22)</sup>와 평안도 <成川府試後契會圖><sup>23)</sup> 역시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보아 재지화원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동시에 가장 필요했던 회화는 바로 지방지도였다. 일찍이 조선전기의 성리학자 김종직(金宗直:1431~1492)은 지방통치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읍지도의 제작과 읍치의 지리적 파악이 최우선이라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慶尙道兵馬評事를 지낼 때 화사를 시켜 경상일대의 지도를 제작하여 펼쳐두고 만일에 대비하였다.<sup>24)</sup> 김종직 이후 300여년이 지난 19세기의 丁若鏞(1762~1836) 역시 부임한 수령이 당장 해결해야 할 사안은 바로 지도 제작으로, 본 현에 화공이 없으면 이웃 현에서 초빙해야하고 비록 서툴다하더라도 반드시 완성해야 할 것으로 거듭 강조하였다.<sup>25)</sup>

조선초기부터 중앙에서는 지속적으로 각 군영과 감영에 그 지방의 지형과 산세를 그려 올리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이 같은 지도 제작은 파견된 감사, 병사, 수사들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지역 재지화원들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1434년 세종은 이전의 우리나라 지도가 틀린 곳이 많아 각 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 경내의 관사배치와 산천수맥과 도로, 마을의 수 등을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에게 전보하고 감사는 각각의 주현의 지도를 차례로 폭을 이어 올리도록 명하였다.<sup>26)</sup> 그리고 수축이 끝난 평안도 영변부의 <鐵瓮山城

21) 李荇, 『容齋集』

22) 李敏求, 『東洲集』前集 卷5, 追題甲子歲安東榜會之圖

23) 崔昱(1539~1612)『簡易文集』卷之八 休假錄 本稀年錄. 其末西前

24) '邑에는 읍의 지도가 있는데 읍지도는 수령에게 매우 긴요한 것이다. 대개 산천의 넓이, 인구의 많고 적음, 경지의 증가와 축소,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읍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畫工에게 명하여 산천, 마을, 창고, 公廡, 院, 驛 등을 한 폭에 그리게 하고, 인구, 경지, 거리 등을 써넣게 하여 黃堂의 벽에 걸게 하니 읍 전체의 封城이 확연하게 한 눈에 들어온다. 세금을 정하고 거들 때마다 먼저 그 문적을 보고 다음에 이 지도를 보아 정해주면 백성들이 조그마한 베품을 입으며, 그 사이에서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金宗直, 『一善志』, 김종직의 <경상도지도>제작은 '장수가 된 사람은 輿地圖를 몰라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두렵게 여기어 盛府에 계책을 말하여 畫師를 시켜 경상 일도의 동서남북의 길이를 자세하게 그려서 廳事에 펼쳐 놓았다....만일의 警報가 있을 경우, 이 그림을 상고하여 策應의 방도로 삼는다면 어찌 작은 도움이야 없겠는가' 金宗直, 『佔畢齋集』第二卷 誌 慶尙道地圖誌

25) 丁若鏞, 『牧民心書』第一卷 赴任六條 第六條 莅事, 第六卷 戶典六條 第四條 戶籍

圖>와 <慈母山城圖形>를 本道에 명하여 그려 올리게 하는 등<sup>27)</sup> 끊임없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각 지역에 배속된 화원들은 읍지도 외에 신축된 산성이나 특별히 험준한 지역의 지형도 등 중앙에서 요구하는 회화를 제작하여야 했다.

다음 <표 3>에서는 경상도의 회사업무라 할 만한 기록들을 따로 발췌해 보았다.

<표 3> 경상도 지역 繪事업무의 양상

종류	연번	회사업무	작품명·년대	발췌문헌
지도 및 지형도	1	경상도 부임 후 읍지도를 제작한다.	<慶尙道地圖> 15세기	金宗直, 『佔畢齋集』第二卷 誌 慶尙道地圖誌
	2	민정을 살피고 고을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 중앙에 보고한다.	<安東民情圖> 1618년	『朝鮮王朝實錄』光海君日記10年 7월 11일
	2	경상도의 지형을 그려 올린다.	<慶尙道地圖> 1588년	『朝鮮王朝實錄』宣祖二十一年 戊寅(二六)
	3	순흥부를 혁파하면서 인접마을에 합속시키는 계획을 그린 지도를 이조에 올린다.	<順興府地圖> 1457년	『朝鮮王朝實錄』世祖三年 11월29일
	4	조정에서 축성의 논의가 있어 동래 白雲山의 圖形을 그려 올린다.	<東萊 白雲山圖形> 1695년	『朝鮮王朝實錄』肅宗二十一年1月7일
	5	『輿地圖書』편찬 시 수록될 지도를 그려 올린다.	<邑地圖> 1757~1836년	
계회도류	6	경상도 일대 108장의 지방지도를 제작하여 올린다.	<地方地圖> <sup>28)</sup> 1872년	
	7	『嶺南營誌』에 수록되는 지도를 제작하다.	<嶺南地圖> 1894년	『嶺南營誌』, 『各司監錄』52(慶尙道補遺篇4)
	8	안동의 士族 11명이 鶴駕山 廣興寺에서 개최한 계회를 그린다.	<壬癸契會圖> 1613년	『홍구계증수기사』1694年
구무품	9	안동에서 과거시험 합격자들의 모임이 있어 계회도를 그린다.	<安東榜會圖> 17세기	李敏求, 『東洲集』前集 卷5, 追題甲子歲安東榜會之圖
	10	동래부사 유여각, 김해부사 조준, 창원부사 박홍미 등 7명이 함허정에서 모인 계회를 그린다.	<涵虛亭賞蓮圖> 1629년	朴弘美, 『涵虛亭宴軸小序』
군사업	11	왜인의 求買品을 제작하다.	<松虎圖> <山水圖>등	홍선표, 1997,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11호, 미술사연구회, 7쪽
	12	도내의 戰兵船을 개장하여 漕船으로 이용하기 위한 各船圖本을 그린다.	<各船圖本> 18세기	『慶尙道戰漕船通用條列冊子』1797年12月
	13	표류선을 만나면 그 船制圖說를 상술한다.	<船制圖本> 19세기	丁若鏞『牧民心書』第三卷 奉公六條 第六條 徭役

26) 『朝鮮王朝實錄』世宗一六年(1434) 5月 24日

27) 『朝鮮王朝實錄』肅宗 11年(1685) 2月30日, 肅宗二九年(1703)1月 16日

종류	연번	회사업무	작품명·년대	발췌문헌
무 보 고 용	14	이양선의 배모양과 외국인의 모습을 그려 올린다.	<異樣船> <人形像> 1848년	『朝鮮王朝實錄』憲宗一四年 4月10日
	15	당포만호가 楸島앞바다에 표류선을 발견하여 보고하자 경상감영에서 조사한 후 선체의 圖書式 책을 제작하여 비변사에 보고하다.	<船體圖書> 1863년	『慶尙監營啓錄』第一冊『各司騰錄』11, 慶尙道1,
	16	경상좌병영에서 이양선이 표류하자 그 선척과 인물을 도화로 제작 후 비변사에 보고하다.	<紅隻人形圖書> 1865년	『慶尙左兵營啓錄』第二冊, 『各司騰錄』11, 慶尙道1
	17	경상감영에서 배 모양의 도본작성과 길이, 너비, 높이 측정 후 책으로 제작하여 비변사에 보고한다.	<紅樣圖本> 1872년	『慶尙監營啓錄』第四冊, 『各司騰錄』11 慶尙道1
기 타	18	상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복검 후 당시의 형상을 도화로 제작하여 문서에 첨부한다.	<屍形圖> 1746년	『商山錄』第二冊, 『各司騰錄』50 慶尙道補遺編2
	19	金山郡民이 제기한 산 소유권 소송시 그 지형을 그린다.	1896년	『訟案』, 『各司騰錄』50 慶尙道補遺篇 2
	20	도주한 범인을 현상수배하기 위한 購捕節目에 그 형상을 그린다.		『秋官志』考律部 定制 購捕事目
	21	동래 監理壼에서 지도 및 회화 수선을 하다	1905년	『東萊港報牒』第七冊, 『各司騰錄』14 慶尙道4

위 사례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화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도제작, 계획·순력도 등의 기록화류 제작 이외에도 관청에서 소송건을 심리하여 해결할 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容貌疤痕記, 屍形圖, 地形圖 등 사건 정황과 처리과정의 기록과 함께 객관적 근거자료로서의 圖畫, 圖形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특히 왜관이 설치되어 있고 일본과 가까운 동래의 경우에는 왜인의 求貨品

28) 『輿地圖書』에는 各地誌마다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營地圖16장(監營地圖:道別圖6, 兵營地圖6, 水營地圖3, 統營地圖1), 邑地圖295장, 鎭地圖1장 등 총 312장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 官撰地圖 제작사업의 마지막 성과로 평가되는 1872년 지방지도는 총 459매로, 특히 경상도일대지도 108매 가운데 慶尙左水營, 釜山鎭, 多大鎭, 豆毛鎭, 西平鎭, 東萊府 지도는 서로 유사한 화풍을 보여주어 동일 화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후기 관용이나 민간용 지도, 특히 군현지도나 마을지도의 증가는 행정체계의 정비, 지방통치 강화 등 사회적 정황에 따른 양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필자는 18세기 이후 각 군·감영의 도화서 파견, 각 지역 재지화원의 증가로 인해 제작자가 확보되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18세기 회화식 지도의 증가에 있어 각 군·감영에 근무한 기량이 뛰어난 도화서 화원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재지화원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태호 역시 일찍이 18·19세기 유행한 민화풍의 회화식 지도를 지관이나 지방화가의 솜씨로 생각한 바 있다. 이태호, 1998, 『朝鮮時代 지도의 繪畫性』, 『한국의 옛 地圖』(資料篇), 146쪽.

에 응하는 무명화가들이 다수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가운데 이시눌의 이름이 있어 흥미롭다.<sup>29)</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시눌은 별군관청 군기감관을 역임한 동래부 재지화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883~1905년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부산고지도>를 그린 曉山 朴桂益는 아직 동래부소속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세기말~20세기 초 동래를 근거지로 그림을 활동했던 재지화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자면 18세기 이후 감영 및 군영에서의 회사업무는 도화서과견화원이 담당한 반면 파견되지 않은 군영이나 읍치단위의 하위통치기관에서는 재지화원이 그 역할을 해내야 했다. 즉 도화서과견화원이 제도화 되기 전까지는 중대한 회화제작을 위해 궁중화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지화원이 대부분의 지방 회사업무를 행했던 반면 법제 개편이 이루어진 18세기 이후부터는 그 역할에 있어 궁중화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도화서차견화원과 재지화원으로 이원화 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sup>30)</sup>

재지화원 중 동래부에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변박이다.

### III. 朝鮮後期 在地畫員 卞璞의 역할

#### 1. 武任職으로서의 畫員업무

변박은 18세기에 활동한 재지화가로 본관은 密陽이고 자는 琢之, 成之, 호는 述齋·荊齋이다. 『邑寓人 卞璞』, 『卞璞 居東萊』,<sup>31)</sup> 『璞是萊州人』,<sup>32)</sup> 등의 기록으로 볼 때 변박은 동래출신으로 동래읍내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

<sup>29)</sup> 홍선표, 1997,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11호, 미술사연구회, 7쪽. 홍선표는 구무품으로 도입된 작품가운데는 유명화가의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것은 무명작가의 화적으로 槐園, 松菴, 山水子, 松水館, 萊山菴, 冲齋, 海翁, 雲庵 등의 별호를 가진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성명인을 사용한 尹持漢, 金達晃, 李時誦를 판독하였으며, 특히 尹持漢으로 추정되는 槐園를 동래를 무대로 구무품을 제작하며 활동했던 지방화가로 추측하였다. 재지화원 연구와 관련하여 이들 작가에 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up>30)</sup> 재지화가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사료로 미루어 보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박과 이시눌과 같이 무관직을 역임하면서 화원의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와 관직을 갖지 않으면서 평소에는 일반수요자의 주문에 부합하는 풍속화나 민화 등을 그리다가 무청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별도로 지방관수회화를 제작하는 경우이다. 박계익이 후자의 예일 가능성이 크다.

<sup>31)</sup> 『忠烈祠志』卷八, 『本府殉節圖』, 忠烈祠 安樂書院編, 민학사, 1978, 142쪽.

<sup>32)</sup> 趙職, 『海槎日記』.

각된다. 생몰년에 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다. 변박은 1763·4년 통신사행 당시 오사카 객관에서 相士인 니이야마 다이호身山退甫에게 印象을 보였는데 그때의 筆語集인 『韓客人相筆話』에 의하면, 1764년 당시 변박은 23세였다. 그러므로 변박은 1741·2년경에 태어났으며, 변박의 기년명작품 중 가장 늦은 시기가 1783년임으로 그의 생몰년은 1741·2년에서 1783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sup>33)</sup>

변박은 동래부 武廳의 각종 무임직을 역임하였는데 그 경력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卞璞과 李時訥의 동래부 무임직 경력<sup>34)</sup>

武廳	武任職	卞璞	李時訥
中軍 <sup>35)</sup>			
將官廳	千摠	●	
	把摠		●
	哨官		
作隊廳	別將		
	百摠		●
別軍官廳	行首	●	
	兵房		
	軍器監官	●	●
	別軍官		
帶率軍官	帶率軍官		
	別將	●	
	百摠		●
教鍊廳	旗知靛 旗手 哨官	●	
	教鍊官		

<sup>33)</sup> 김동철, 2003, 앞의 논문, 50~51쪽.

<sup>34)</sup> 김동철, 2003, 앞의 논문, 52쪽 ●은 무임선생안에 등재된 경력을 표시한 것이다.

<sup>35)</sup> 中軍 - 조선시대의 京官職에서는 훈련도감·禁衛營·御營廳·摠戒廳 등에 둔 종2품관으로 대장에 비금가는 장군직이었으며, 外官職에서는 절도사·방어사·통제사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는 장군직이었다. 각 찰에서 대장 또는 使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실무를 총괄하였다.

장관청의 천총, 별군관청 행수와 군기감관, 수첩청의 별장, 교련청 기지구 기수 초관의 직책을 맡았는데(그림1,2) 장관청의 천총, 별군관청 행수 수첩청의 별장은 각 무칭의 최고직이다. 무칭은 치안이나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방의 요충지인 동래에는 다른 지역보다 무칭이 많았다.<sup>36)</sup> 『典客司日記』 正祖5年(1781) 3월 5일조의 내용은 변박이 守成別將으로서 행한 업무의 하나이다. 그는 飛船이 私書·路文을 가지고 入歸했을때, 春社日 倭人이 舊倭館 뒷산 先祖省墓時 濫行이 없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동래부사 조영진이 1781년 2월25일 올린 장계를 보니

2월(本月) 24일 未時에 도착한 부산첨사 권윤의 급보(馳通)에, ‘금년(1781) 1월22일 출현한 정체불명의 배(飛船) 안에 우두머리왜인 1명과 격왜 5명이 있었다. (5명중에는) 庚子年(1780) 7월13일 입국 금지된 왜인이 한 명 있었고 1780년 9월7일 왔던 公下代왜인 2명 등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관수대관(왜관안의 우두머리)은 개인편지와 본 진에서 만들어준 여행통행증(路文) 한 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일 10시쯤에(巳時) 바로 왜관에서 출발해서 돌아온 것이 맞는지 어떤지를 확인하였다. 훈도 한정수와 별차 김덕순 등의 서류(手本)와 구봉봉군(구봉산 봉수대의 근무자) 김귀삼의 보고를 증거로 삼아 그 연유를 급보로 이같이 아뢰옵니다.’ 하였다.

또 부산첨사의 보고서(移文)에 첨부된 훈도와 별차의 서류에는, ‘왜인들은 매년 춘사일과 추사일(사직에 제사올리는 날)에 왜관에 머물러 사는 왜인들은 구 왜관 뒷산에 있는 조상의 무덤에, 성묘가는 예규가 일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수의 왜인이 2월22일은 춘사일이라 의당 옛날의 의례에 의해 성묘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꾸짖어 말하기를, 2월25일은 춘사일이 이미 지나갔거늘 어찌 23일에 성묘를 가느냐 하였더니 그 왜인이 답하기를, 일본의 법(弊邦憲書)에서는 23일은 춘사일과 같이 한다는 말을 하여 이에 근거하고, 서류(手本)도 있어서 왜인들이 출입할 때에는 별차가 소통사를 인솔하며, 화압은 왕래할 때 보여주고, 부산진(本鎮, 弊鎮)으로부터 ‘將羅’를 정하고 나아가 두모포에서 일체 잡된 것을 금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여 똑바로 어긋남 없이(申飭) 이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래부사(臣)은 동래부에서 수성별장 변박과 파총 박진보 등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어지러운 행동을 금하고 규범을 지키도록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감히 어긋나게 행동하지 말도록 하였고, 엄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올린 급보(馳啓)입니다.’라 하였다.<sup>37)</sup>

<sup>36)</sup> 김동철, 2003, 앞의 논문, 53쪽.

<sup>37)</sup> 『各司謄錄』92卷 『典客司日記』第29, 1781.

東萊府使趙英鎭去月二十五日成貼狀啓內, 本月二十四日未時到付釜山僉使權綸馳通內, 今年正月二十二日出來飛船良中, 頭倭一人, 格倭五名, 庚子七月十三日出來中禁徒倭一人, 庚子九月初七日出來公下代倭二名等同騎, 持館守代官倭等私書及本鎮成給路文一度, 當日巳時, 直

그는 武任 직책으로 무청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원의 임무도 동시에 행했던 것이다. 그가 화원으로서 역작을 제작하게 된 것은 1760년으로, 동래부의 중요한 과제였던 <東萊府殉節圖> <釜山鎮殉節圖>(그림3,4) 제작을 도맡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부터 부임한 동래부사들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선열들의 忠義를 기리는 사업이었다. 1597년(선조27) 慶尙防禦使 金景瑞(1564-1624)가 조정에 상소를 올려 宋象賢(1551~1592) 府使에게 자헌대부, 이조판서가 추증된 이후 동래부사 尹暄(1573~1627)이 1605년 송부사의 사당을 동래부 남문 내에 건립하였다. 1652년 尹文舉(1606~1672)는 남문내가 喧雜하여 선령을 봉사하는 곳으로 부적당하다하여 동래부에서 동으로 약 5리 떨어진 안락동으로 옮겨 규모를 확대하고 서원의 기구를 갖추어 ‘安樂書院’으로 개칭하였고, 다음해에 송상현은 忠烈이란 시호를 받게 된다. 1658년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재임한 부사 閔鼎重(1628~1692)은 宋府使, 鄭僉使 이하 諸公의 순절사적이 사라져 후세에 전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전래하는 故老의 말을 모으고 서책을 뒤적여 문헌상 정리된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여러 칸의 집을 지어 화공으로 하여금 그 자취를 그리게 하였으나<sup>38)</sup> 비를 세우는 일은 병으로 부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부사 李之翼(1625~1694)은 민정중부사의 비 세우는 일

自館所, 發船入歸是如, 訓導韓廷脩別差金德淳等手本及龜峰烽軍金貴三進告據, 緣由馳通是如爲白有旅, 節到付同僉使移文內, 卽接訓別等手本, 則倭人等祖先墳塚, 在於舊館後山, 而每當春秋社日, 則留館倭人等, 例有往省之規是如乎, 館守倭言內, 今月二十二日, 爲春社日是如, 依舊例往省亦爲乎等以, 詰問曰, 今月二十五日, 爲春社日是去乙, 何以二十三日往省耶云爾, 則同倭答以爲, 弊邦憲書中, 二十三日爲春社日是如言說據, 手本爲有等以, 倭人等出入時, 別差率小通事, 押領來往是遣, 亦自弊鎮定將羅, 前路豆毛浦良中, 一體禁雜, 使不得濫行之意, 申飭是如爲白有等以, 自臣府發遣守城別將卞璞把摠朴晉普等, 亦爲眼同禁護, 毋敢違越濫行之意, 另加嚴飭, 緣由馳啓事.

<sup>38)</sup> 『欲求刻石以載基事 且造數間屋 子於官道之傍 今畫工圖其跡 以爲觀感之助』 『忠烈祠志』 卷六 『壬辰東萊遺事』, 105~106쪽.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순절도 제작이 권이진부사 때 와서야 제작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는 『忠烈祠志』 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해석은 민정중이 그림그리기를 도모하였으나 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今畫工圖其跡’의 ‘圖’는 도모하였다는 ‘시도’의 의미와 ‘그렸다’라는 ‘완성’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화공으로 하여금 그 자취를 그리게 하였다’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민정중부사 때 이미 순절도가 제작되었고, 50여년의 간극을 가지고 권이진부사시절, 흥명한 부사시절에 각각 개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廬山宋氏知申公派譜』에 의하면 민정중이 순절도 3폭을 그리하게 하여 1폭은 조정에 올리고, 1폭은 민정중 자신의 집에, 1폭은 송부사 가문에 소장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러므로 민정중 당시 그린 3폭의 순절도 가운데 하나가 동래부에 봉안되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송부사 가문에 전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을 성취시키고자 민정중에게 당시의 사료를 받아서<sup>39)</sup> 宋時烈에게 비문을 의뢰하였다. 송시열은 양산군수 趙英珪 순절의 追記 등 『壬辰遺聞』을 기초로 약간 수정한 후 비문을 작성하였다.<sup>40)</sup> 다음 동래부사였던 鄭皙(1619~?)은 이 비문을 가지고 1670년 弄珠山에 宋浚吉書 李正英篆의 비를 세우게 된다.

1709년 11월 하순 부사 權以鎭(1668~1734)은 宋·鄭公 두 분만 모심을 안타까워하며 남문내에 새로 별사를 지어 조영규 이하 金祥에 이르는 靈位를 모시고, 농주산의 비를 別祠 뜰로 옮겨 비각을 짓고 그 벽 좌우에 諸公이 순절하는 모습과 좌병사 李瑋이 도망가는 모습을 다시 그려 두 폭의 족자로 걸어 후세에 그들의 충의를 전하고자 하였다. 50여년이 지난 후 부사 洪名漢(1724~1774)<sup>41)</sup>이 비각 중수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두 순절도가 알아보기 어렵게 되자 邑寓人 변박에게 다시 그리게 하여 안락서원에 수장하였다. 그리고 『本府殉節圖序』와 『釜山殉節圖序』지어 당시 순절모습과 두 순절도의 제작의도를 설명하였다.<sup>42)</sup>

지금은 壬辰亂을 지난 지 거의 二百年에 가까운데도 사람들의耳目에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비치는 것은 이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보면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어미도 忠良을 본받고 貞烈을 흠모할 줄 알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또한 모두가 賊으로 인하여 임금을 버림은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못 사람들이 제각기 城을 이루는 마음이 있고 백성이 모두 임금을 호위하는 의리를 알게 될 것인즉 한 폭의 그림(丹青)이 깊은 참호와 높은 성담과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 하겠다. 아아, 東萊府에 어찌 하루라도 이 그림이 없으리오. 애석하게도 해가 오래됨에 변하고 헤어져 가니 나는 적이 아주 흐려져서 분별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워하여 드디어 邑에 머물고 있는 사람(邑寓人) 卞璞을 시켜 다시 模寫하고 새로 장정하게 하니 만약에 뒷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그림을 보는 것을 지금에 옛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그림은 장차 오래 오래 전해질 것이요 壬辰亂에 殉節한 일은 千百年을 지나서도 하루와 같을 것이니 이 어찌 圖像이 또한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리오.<sup>43)</sup>

39) 東萊父老들은 당시 咸鏡道 監司인 閔鼎重에게 편지 보내어 史料를 청하자 閔鼎重은 10년 묵은 草稿를 정리하여 正月에 부쳐주었는데 제목을 『壬辰遺聞』이라 하였다.

40) 『東萊南門碑記』(尤庵集 卷一六 所收)

41) 洪名漢 동래부사재임기간은 1757.9.19~1761.9.6이다.

42) 『忠烈祠志』 卷八 合享錄, 『本府殉節圖序』, 『釜山殉節圖序』, 142~143쪽.

43) 『忠烈祠志』 卷八 合享錄, 『本府殉節圖序』, 142~143쪽.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이 끝난 60여년 후인 1658년 민정중 부사의 주도하에 그려진 순절도는 50여년 뒤 1709년 권이진의 동래부사 재임시에 새로이 그려지고, 다시 50여년 후 홍명한부사 때 변박에 의해 다시 그려진 것이다. 제작된 두 순절도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안락서원에 수장되어 본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임진난의 교훈을 본받게 하였다.

특히 동래부사 홍명한은 동래부에 한 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기념비적인 기록화제작에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평화로운 시기에 자칫 방심하는 실수를 견지하고, 용맹하고 충성스런 인물을 지도하고 양성하고자 함이었다.

이제 壬辰亂을 겪은지 오래되어 平和가 계속되고 海上이 무시하여 남쪽 妖氛요분이 盛하지 않으나 이 賊은 잊을 수 없고 이 곳은 소홀히 할 수 없음이라. 公을 이어 邊城을 지키는 者 모두가 公의 忠勇으로써 스승으로 삼아 지도하고 양성하여 때를 기다린다면 往事가 반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하늘도 반드시 壬辰亂 때 한 것과 같지는 않을 것이니 이미 人事를 다하고 또 天時를 얻으면 公의 못다한 일을 이루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다. 殉節圖를 같이 전함은 어찌 他日에 左契가 되지 않을 것을 알리오. 다시 그려서 보관함은 後日의 忠勇한 사람을 힘쓰도록 함이다.<sup>44)</sup>

이처럼 중대한 임무가 변박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760년 이전에 그의 화력을 동래부에서 이미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1741·2년생으로 본다면 당시 나이는 19세 정도이다.

한편 임진난 선열들의 崇陽사업 이외에 동래부사의 또 다른 주요임무중 하나는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善隣外交였다. 왜관은 선린외교를 위한 대표적 공간으로, 왜관의 설치와 이전 및 증축, 행정관리 등 그 실무는 동래부사가 담당하였다.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동래민과의 불법 상거래를 통제하는 일은 동래부에서 파견된 군사들의 몫이었다. 왜인과의 불미스런 사건은 종종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파직되는 동래부사도 적지 않았다. 동래부 왜관은 동래부사의 외교정치수행력을 가능하는 중대한 정치적 공간이었다. 변박은 1783년 여름에 이 <왜관도>(그림5)를 제작하게 된다.

그리고 동래부에 일본사신이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왜관내의 客소에 와서 역대국왕의 전패에 숙배하였으며, 연대청에서 연향을 베풀며 외교문제를 상의하

44) 『忠烈祠志』 卷八 合享錄, 『釜山殉節圖序』, 143쪽.

였다. 이 때 일본사신을 연대청에 초대하여 연향을 베풀고 외교문제를 상의하며, 또한 書契를 접수하고 진상물과 예단 등을 교환하는 임무를 맡는 직책이 접위관(문관3품)이다. 방문 시에 쓰시마 도주의 送使인 소차왜 및 재판왜가 오거나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서 일본사신과 협의할 때는 중앙에서 파견된 京接慰官이 아닌 경상감사가 도내의 문관 수령 중에서 적당한 인물을 가려 차송하는 鄉接慰官이 그 임무를 담당했는데, 동래부사가 맡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잘 알려져 있는 <東萊府使與倭使接景圖>(일명 東萊府使接倭使圖)<sup>45)</sup>가 그 같은 동래부의 행사를 그린 기록화이다.

## 2. 通信使行으로서의 繪事業무

변박은 1763년 趙曦(1719-1777)이 正使로, 도화서 화원인 金有聲이 수행화원으로 떠나는 통신사행에 참여하게 된다. 임진왜란 후 조선정부가 德川幕府와의 사이에 교린관계가 맺어진 후 열두 번에 걸쳐서 조선통신사(1635까지는 回答兼刷還使)가 파견되었다. 德川時代(1603-1868)에 일본본토를 방문한 조선통신사는 1763년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1811년에 對馬島 嚴原을 왕래했을 뿐이다. 영조년간(1725~1776)는 청국과의 ‘事大’와 일본과의 ‘交隣’외교가 안정되어 한일간에 별다른 현안문제는 없었고 관례에 따라서 征夷大將軍 德川家重가 죽은 후 家治가 장군직을 세습한 것에 대한 축하사절단이 1763년 통신사행이다. 당시 일본에 파견된 조선측 통신사 일행은 正使 趙曦, 副使 李仁培, 從事官 金相翊의 三使를 비롯하여 총인원 472명으로 구성되었다. 영조는 이미 1년전에 正使 徐命庸, 副使 趙璘, 從事官 李得培를 三使로 임명했는데 출국에 임박해서 상기 三使로 교체하였다. 조엄은 이미 대일 교린외교를 관할하는 동래부사, 경상감사를 역임한 바 있어 日本通이었기 때문일 것이다.<sup>46)</sup>

시기적으로 조엄은 변박이 두 점의 순절도를 제작한 1760년 이전에 동래부사(재임기간1757.12.29- 1759.1.10)를 역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동래부에서의 변박의 畫名을 익히 알고 있었다. 변박이 순절도를 제작할 즈음 조엄은 경상감사를 지내고 있었는데,<sup>47)</sup> 충렬사의 장계를 올리는 일을 도맡아했었다. 1760년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 제작이후 첫 제향을 올릴 때 참석

45) <동래부접왜사도>는 작가와 화풍에 있어 명확하지 않아 다음 연구에 논의하고자 한다.  
46) 강제인, 2000, 『1764年度(英祖40) 朝鮮通信使의 日本使行에 對하여』, 『亞細亞文化研究』4집, 경원대학교亞細亞文化研究所, 中國 中央民族大學 韓國文化研究所, 33~34쪽.  
47) 조엄, 1984, 『국역해행총재』VII 『海倭日記』 『酬唱錄』 민족문화추진회, 353쪽.

한 조엄이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다. 동래부는 물론 경상도 일대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그로서 도화서 소속의 김유성이 공식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박을 기선장의 임무로 통신사행에 참여시킨 점이나 직책은 기선장이었지만 실제역할은 수행화원의 임무를 행했던 이유는 변박이 시서화에 아주 능하였고, 동래에서 활동한 인물로 일본사정에 밝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sup>48)</sup> 사행을 떠나기 전 이미 동래부의 명성을 가진 화가였다는 점은 <동래부 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의 제작으로 알 수 있으며, 김유성에 버금가는 필력을 가졌음은 『海槎日記』의 여러 부분에서 확인된다. 통신사행을 떠나게 된 변박은 조엄이 가까이 두고 향해 중에 명산대천의 기록성이 가미된 풍경을 그리게 지시하였고, 김유성이 그린 지도가 번잡하자 그가 다시 그린다. 조엄이 판단하기에는 변박이 김유성보다 훨씬 지도를 일목요연하게 잘 그리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듯하다. 처음 보는 水車의 형태와 그 원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기록하게 한 것은<sup>49)</sup> 단순히 사물을 재현하는 단계를 넘어 사물을 이해하는 명석함까지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변박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한 별파진 허규는 前僉使로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다.

『해사일기』1764년(영조40) 1월 27일

저녁에 요도淀浦에 머물렀다.(중략) 성 밖에 水車 두 대가 있어 모양이 물레 [纜車]와 같은데, 물결을 따라 스스로 돌면서 물을 떠서 통에 부어 성중으로 보낸다. 보기에 매우 괴이하므로 別破陣 許圭·都訓導 卞璞을 시켜 자세히 그 제도과 모양을 보게 했다. 만일 그 제작 방법을 옮겨다가 우리나라에 사용한다면, 눈에 물을 대기에 유리하겠는데 두 사람이 꼭 성공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sup>50)</sup>

조엄은 대단히 실학적인 안목을 가진 정치가로 이용후생의 입장에서 농업 발전을 진흥시키고자 하였다.<sup>51)</sup> 통신사행 당시 八幡山에서 본 물레방아의 효율성을 간파하고 별파진 허규에게 신중히 관찰하여 그 형상을 그려 돌아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48) 김동철 역시 변박이 그림솜씨 때문에 통신사행의 참가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김동철, 앞의 논문, 59쪽.

49) 조엄, 1984, 앞의 책, 300쪽.

50) 조엄, 1984, 앞의 책, 157쪽.

51) 金義煥, 「趙職이 본 18세기 후반기의 日本社會와 韓日關係-그의 『海槎日記』를 中心으로」, 『玄岩 申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180~183쪽. 김동철 앞의 논문 재인용.

『해사일기』1764년(영조40) 4월 2일

맑음. 八幡山에서 점심을 먹고, 森山에서 잤다. 날 맑을 무렵에 출발하여 30리를 가서 잠깐 茶屋에서 쉬고, 八幡山에서 점심을 먹었다. 길 옆에서 방아 찹는 소리가 나므로, 허규에게, 뒤에 떨어져서 잘 살펴보았다가 돌아와서 그 만듦새를 전하도록 하였다. 물레방아는 툇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돌며, 前杠에 3개의 방아와 2개의 공이와 확을 달고 後杠에 맷돌을 달고 있는데, 물의 형편을 보아 가감할 수 있으며, 인력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한 수력을 빌려서 6~7군데에서 찹거나 가니 좋은 기계라 할 만하다. 허규는, ‘그 제도를 자세히 보고 이미 그대로 모형을 그렸으니, 수백 금만 얻는다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sup>52)</sup>

지리에 대한 관심, 현실인식과 농업진흥 노력, 선진기술의 적극적 도입 등 조업의 실학적 사상에 구체적이고도 시각화된 해답을 제시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변박과 허규였던 것이다. 그들의 지도와 수차, 물레방아 도본 등은 남아 있지 않지만, 지리와 사물의 구조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업이 주문한 그림들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박은 통신사행에서 官需 성격의 그림제작 이외에 서화시재행사에 참여하여 도화서 화원에 뒤지지 않는 기량을 발휘하였고, 일본인은 그의 회화를 가보로 간직할 만큼 소중히 여겼다.<sup>53)</sup> 통신사행에 참여하면서 그가 그린 그림으로는 <墨竹圖>(그림6.7)와 <松下虎圖>(1764)가 있으며, 왜관을 통한 구무품으로 일본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柳下馬圖>(1779)(그림8)도 일본에 전한다.

### 3. 幼學으로서의 서예활동

1760년 순절도 제작 이후 변박은 1765년 겨울 <東萊獨鎮大衙門>(그림 9.10) 현판을 적는다. 이 현판은 많은 관아건물의 중심에 있었던 동래부 동헌 앞 소슬삼문의 횡액이다. 이 삼문은 1700년 동래부사 金德基에 의해 중수되었고 다시 1870년 동래부사 鄭顯德에 의하여 중건되었다고 한다.<sup>54)</sup> 이 대문의 정면 위에 걸려진 <동래독진대이문>이란 현판은 1655년에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 좌병영 휘하 경주진관에서 독립하여 동래독진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 그 아래 양측 기둥의 ‘鎮邊兵馬節制營’, ‘交隣宴餉宣慰司’<sup>55)</sup>란 현판은 이곳 동

<sup>52)</sup> 조업, 1984, 앞의 책, 240~241쪽.

<sup>53)</sup> 홍선표, 1998,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畫員의 繪畫活動』,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197쪽.

<sup>54)</sup> 『東萊府誌』官舍條 : 『東萊群誌』上 ‘高宗庚午府使鄭顯德廣築城壁門樓今因道路開通爲平地東北只有殘跡’

래부가 鎭邊의 병마절도사의 營이며, 대일외교 일본사신을 접대하는 관아라는 뜻이다. 즉 동래부의 독립적이면서 중대한 직책을 알려주는 글인 것이다. 동래부 청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동헌 앞 대문의 현판에 글씨를 쓸 수 있음은 회화 뿐 아니라 서예에도 능하여 그 필력이 동래부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56)</sup> 이 현판에는 ‘歲乙酉冬書’란 화기와 ‘卞璞’의 낙관만이 있지만, <四處石橋碑>(그림11)의 글씨를 쓸 때는 ‘幼學卞璞書’라고 기재하고 있어 어느 때인가 무임직이라는 중인신분으로부터 幼學 즉 양반으로의 신분상승, 혹은 양반신분의 대우를 받거나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생활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비석은 1781년 동래부의 남문밖에 있는 4곳의 나무다리를 石橋로 바꾼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이전의 나무다리는 1-2년마다 개수해야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비용을 거두었으므로 민폐가 심하여 嘉善 姜謂聖이 발의하여 朴東裕, 朴師仁 등 4-5인이 이 다리를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모금하여 석교를 만들었다. 이 때 동래부사 李文源(1740~1794)은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여 협조함으로써 석교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비에는 석교제작의 정황과 녹봉을 기부한 이문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비문은 前成均典籍 洪愼이 짓고 글씨는 변박이 쓴 것이다. 이 비석이 세워진 崇禎3年(1781)은 趙英鎭(1737~?)부사의 재임기간이었으나 이문원을 칭송한 것은 그가 녹봉을 기부하였으며, 또 이 당시 본도의 감사로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높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동래부사 당시 변박에게 글씨를 쓰게 명하였고, 경상감사가 된 후 役事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그의 필력을 인정한 셈이다.

1781년에 그는 別將職을 맡고 있었으나 ‘幼學’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신분변화에 관해서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인신분으로서 관아의 현판 글씨를 쉽게 맡겼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래독진대야문> 현판을 쓸 당시부터 ‘幼學’으로서의 신분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정황을 미루어 동래부에서 화원으로서뿐 아니라 서예가로서의 화력과 필력을 인정받은 서화가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57)</sup>

55) 양 기둥에 쓰여진 글씨는 대원군으로 추정된다.

56) 당시 東萊府使는 姜必履로, 재임기간은 甲申(1764).8.20-丙戌(1766).11.10이다.

57) 홍미로운 점은 1783년 이후 변박에 관한 기록이 전라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점이다. 1786년 전라도 우수영의 속진인 於蘭浦 萬戶(종4품)을 역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변박일 개연성은 있지만 변박이 실제로 여기서 근무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바가 없다. 『日省錄』, 1786年2月11日, 4月15日, 4月17日, 6月1日.

#### IV. 在地畫員 卞璞의 官需繪事 <표 5>참조

##### 1. 東萊府殉節圖와 釜山鎭殉節圖

###### 1) 제작배경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는 1592년 4월 14일과 15일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부 전투와 부산진전투를 묘사한 그림으로 1760년 당시 동래부사 洪名漢의 명으로 변박이 제작한 동래부의 기념비적 기록화이다. 안락서원에 보관되어 있다가 육군박물관으로 이전된 이후 현재는 부산박물관에 대여 전시중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진왜란이후 동래부사들은 순절한 선열들의 忠義를 기리는 사업에 힘써왔으며, 시각적으로 완성된 것은 『忠烈祠志』에 의하면 민정중부사 재임 시 시작하여 권이진부사와 홍명한부사의 주도하에서였다. 홍명한은 한 폭의 그림이 깊은 참호와 높은 성담과 굳은 갑옷, 날카로운 병기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 생각하였고, 당시의 순절도가 오래되어 낡고 흐려져서 다시 묘사하고 새로 장정함으로써 후세에 순절의 역사와 도상을 기리 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18세기 영정조시대 동래부의 정치 사회적 변화양상과 무관하지 않다.<sup>58)</sup> 우선 18세기 동래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하나로 ‘동래읍성의 재축조’가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공을 받아 무너진 성곽은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731년(영조7) 동래부사 鄭彦燮(1686~1748)의 발의에 의해 비로소 축조되었다. 금정산성은 그보다 앞선 1703년(숙종29) 경상감사 趙泰東의 제안에 따라 축조가 시작되었으나 10여년 만에 혁파되고 19세기 초엽에 다시 재건되었다. 동래읍성의 축성은 관방시설의 강화와 영조의 탕평책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役事였다. 영조년간 이후 도성을 방어하는 체제는 도성자체를 수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동래부의 관방시설이 금정산성에서부터 동래읍성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게 된 것이 그 일례이다. 무신난을 계기로 변란이 일어났을 때 도성을 버리고 피난하기 보다는 도성민이 함께 지킨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sup>59)</sup> 전란이 일어났을 때 이 성을 지키며 싸운 사례가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또한 축조당시 왜란 당시의 전망자 유해를 발굴하여 분묘를 조성, 비석을 세움

<sup>58)</sup> 권소영은 순절도의 제작배경에 관해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재편하려는 서인·노론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권소영, 2003, 앞의 논문, 16~20쪽. 그러나 궁극적으로 임진전란과 관련된 숭양사업의 일환이란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sup>59)</sup> 윤용출, 2004, 『조선후기 동래부의 축성논의』, 『부산지역연구』제10권, 부산지리연구소, 21쪽.

로서 송상현과 함께 절개를 지켜 목숨바친 무명용사들의 추모하였다. 이 또한 치열했던 전투와 동래부민의 절개와 충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8세기 동래부 권위 격상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동래부의 중요사건을 기록화로 남김으로서 關防으로서의 동래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였지만 임진왜란이후 최초격전지로서 싸움에 패하자 동래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1547년(명종2) 丁未條約을 맺은 해 동래는 縣에서 都護府로 승격되었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동래부는 여전히 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 곧 慶尙左兵營관하의 경주진관에 속하였는데 1655년(효종6) 이곳에 獨鎭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경주진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739년(영조15)부터 동래부사는 守城將을 겸하게 되어 東萊鎭兵馬僉節制使이며 동래뿐 아니라 양산, 기장의 군사권을 통치하게 되었다.<sup>60)</sup> 동래부사의 군사적 지위가 강화되고 남쪽의 관방으로서 동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 동래읍성과 부산진성은 임진왜란의 치열한 격전지이자 패배의 장소이며 동시에 순국의 현장이기도 하다. 동래읍성의 축조는 과거 역사적 장소의 시각화 과정이자 군과 민이 결집하여 왜적에 맞싸웠던 동래부 역사인식의 기초작업이 되었다. 임진왜란이후 폐허가 되어 있던 동래읍성이 임진왜란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축조되면서 역사적 장소가 재현되지만 역사적 사건의 재현은 회화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었다.

## 2) 두 점의 순절도 화풍

<동래부순절도>는 비단바탕에 채색화로 세로 145.6cm, 가로 95.6cm의 화면크기를 가진다. 화면은 세로로 긴 세 개의 비단을 기워 만든 바탕이다. (尙左→尙右: 18.6+38.2+38.9cm) 오랜 세월로 연결부분의 바탕은 그 흐름이 다소 어긋난 상태이며, 화면 여러 부분에는 절흔이 보인다.

이 작품은 화면 중앙에 동래읍성을 두고, 성 내부에 동래부의 군사들을, 그리고 성을 둘러싼 왜인들의 모습을 성의 윤곽선을 따라 배치하여 중앙중심의 구도를 취하며, 전체적으로 부감시로 그린 작품이다. 화면의 중앙에 관복을 입고 국왕의 전패에 하직인사를 하는 송상현 부사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속의 주요 인물들은 동래성 전투와 관련하여 체각기 ‘이야기 story’를 가지고 있다. 이 ‘story’의 해석은 텍스트로서의 『忠烈祠志』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기입된 宋忠烈公 泉谷先生宗宅收藏本 <東萊府殉節圖>에 의해 가능해진다. 동래

60) 『東萊府誌』 建置沿革, 윤용출의 글, 14쪽.

부사 송상현, 양산군수 趙英珪, 향교교수 盧蓋邦, 유생 文德謙과 梁潮漢, 僱人 申汝檣, 송상현의 妾 金蟾, 府民 金祥, 二村女 등은 1592년 4월15일 급박했던 왜군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나뭇대로의 충효와 절개를 실천하였으며, 결국은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로 생을 마감하였다.<sup>61)</sup> 화면중앙에 묘사된 인물의 위치와 자세는 ‘story’의 마지막 부분, 즉 순절의 순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동래부순절도>가 감계적 성격의 기록화로서 충실한 까닭은 바로 화면 속에 묘사된 신분이 다른 인물들이 제작기 ‘순절의 story’를 시각적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충절’의 감동이 배가된다.

화면에는 송상현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화면 중앙 의관을 정제하고 왕의 위패에 하직 인사하는 송상현 외에 남문루의 중앙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갑옷입은 인물이다. 그리고 성의 남문에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팻말과 한창 격전중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반면 성 외곽에는 도망가는 이각과 그의 군사들을 묘사하여 충절의 이미지와 대조시키고 있다. 즉 전쟁에 앞선 왜군과의 팻말대화<sup>62)</sup>, 갑옷을 입고 전쟁에서 결전에 임하는 송상현, 그리고 패전을 직감하고 갑옷위에 관복을 입고 임금에게 절하는 송상현 등 시간적 간격을 가지는 연속된 사건을 한 화면에 구축하여 역사적인 한 사건의 전말을 서사적으로 재현하였다. 이렇듯 효과적인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한 화면에 사건의 흐름을 점이적으로 묘사하는 형식은 주로 두루마리그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변박은 죽자에 이 같이 배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화면에 전체적으로 사용한 綠色과 墨色은 바랜 편이지만 靑色과 白色, 朱色의 안료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산수묘사에서는 윤곽선을 두고 약간의 담채를 바탕으로 명암을 넣었으며, 원산은 푸른 윤곽선과 맑은 담채로 묘사하였다. 인물묘사에 있어서는 눈, 코, 입 등과 얼굴윤곽선, 손과 발 등 신체표현은 朱色으로, 눈썹과 눈은 墨色으로 처리하였는데 18세기 풍속화에서 즐겨 사용하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의복 표현은 동래군민의 경우는 높은 채도의 색채를 倭人의 경우는 낮은 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 대비효과를 의도하였다.

그런데 변박의 <동래부순절도>(이하 변박본)는 송상현종가소장본 <동래부순절도>(이하 종가소장본)와 비교 고찰하면 회화적 특징이 더욱 부각된다.(그

61) 『忠烈祠志』卷七 分享錄 「書記」와 卷八 合享錄 「本俯殉節圖序」, 『釜山殉節圖序』참조

62) 1592년 4월 15일 동래성 전투에서의 적군의 牌木 ‘싸울테면 싸우고 싸우지 못하겠으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戰則戰矣不戰則假道)’과 송상현측의 牌木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어렵다(戰死易假道難)’을 이 그림에서는 간략하게 ‘假我途’와 ‘假途難’으로 적어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림12~15) 사실 화면중앙의 객사 묘사에 있어서는 종가소장본이 훨씬 사실적이라 할 수 있다. 변박본은 객사문이 닫혀진 채로 묘사되었지만 종가소장본은 객사문이 열리고 전패와 位床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변박본이 종가소장본보다 훨씬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편이다. 우선 『충렬사지』에 의하면 송상현은 갑옷위에 조복을 입고 임금께 하직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정3품으로 홍포를 입고 있는 변박본에 비해 백포를 입고 있는 종가소장본의 묘사는 사료에 어긋나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객사를 앞에 둔 송상현부사, 양산군수 조영규, 김희수와 신여로, 송백 등의 비장 표현에 있어 종가소장본은 군수와 비장의 의복이 차별없이 유사하게 표현된 반면 변박본은 부사, 군수, 비장의 직위에 걸맞은 의복의 차이를 엄두하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향교 교수인 노개방의 경우 종가소장본은 홍포를 입고 있는데 이는 복식규범에 맞지 않다.<sup>63)</sup> 향교 교수의 직제가 종6품~종9품직임을 감안할 때 교수의 의복은 청색이나 녹색계열을 입어야 마땅함으로 변박본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16,17) 그리고 금섬이 그려진 동헌과 내아의 구성이 종가소장본의 경우 소략하게 표현된 반면 변박본에서는 한 담장 안에 배치하여 사실에 가깝게 묘사되었다. 김상과 이춘녀에 묘사에서도 두 채의 기와지붕에 올라간 모습도 변박본이 보다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그림18,19)

그런데 성내부의 묘사가 변박본이 더 정확한 데 반하여 성 외부의 묘사는 종가소장본에서 세심하고 다양한 표현이 눈에 띈다. 우리 군사들과 일본인들의 의복표현이 좀 더 섬세하고 색상이 다양하고 화려할 뿐 아니라 화면전면의 하단에 배치된 막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열된 여러 종의 軍器 묘사 등으로 볼 때 종가소장본이 시기가 앞선 것으로 여겨진다. 시기적으로 후대에 그려진 변박본에서는 막사좌우의 나열된 軍器가 한 종류로 획일화되어 그려졌고 인물들의 복식은 무채색의 동일계열 색상으로 단순화되었다.(그림20,21) 반면 종가소장본에서는 남문에서 적과의 대치장면 중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이 거의 없지만 변박본에서는 이미 화살에 의해 죽은 시체를 그려 넣음으로써 치열한 전쟁의 일면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변박본의 특징들은 종가소장본에 비해 후대에 그리면서 복잡한 것을 간략화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누락된 부분은 첨가하고 약한 부분은 강조하여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4)</sup>

63) 公服은 정3품까지 紅袍, 종6품까지 靑袍, 그 이하는 綠袍를 입는다. 『大典會通』禮曹 儀章 服 참조.

64) 정길지는 송상현 종가소장본<동래부순절도>를 18세기 이후의 기록화로 보았으나 양맹준 문화재위원은 종가소장본에 비해 변박본을 후대의 것으로 보았다. 필자 역시 변박의 작품에 선

또한 동래읍성 안의 馬鞍山과 望月山, 남문 앞의 弄珠山, 萊山과 輪山, 蘇山 등의 위치와 표현이 증가소장본에 비해 더 지리적 정확성을 보여준다.<sup>65)</sup> 이처럼 역사적·지리적 고증에 충실하게 화면에 재현한 것으로 보아 변박은 동래지리에 상당히 밝았던 인물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진순절도>역시 <동래부순절도>와 마찬가지로 비단바탕에 채색화로 세로 144.1, 가로95.9 cm의 화면크기이며, 세 개의 비단으로 연결되었다.(向左→向右: 19.6+37.9+38.7cm) 화면 향우측에 부산진성이 위치하고 화면 향 좌측에 왜군들의 배들이 해안가 가득히 군집해있는 모습을 대각선 구도로 배치하였다. 중앙에 있는 성은 부산진성으로 부산진성의 남문자리가 현재 일신병원 맞은편 鄭公壇 위치이다. 현재 일신병원 맞은편에 정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석에는 '址卽古鎮南門也' 적혀져 있다. 화면앞 쪽에는 또 다른 성을 묘사하였는데 이 성은 아직 역사적으로 고증되지 않은 장소로, 임진왜란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진성의 외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변박이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 지역에는 임진왜란 후 축조된 범천증산성과 자성대라 불리는 부산진 왜성이 있었으며, 경상도관찰사 권반이 1614년 자성대 근처 해안의 선착장 앞에 세운 永嘉臺 또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순절도>의 화면에는 임진왜란 이후 형성된 범천증산성과 자성대, 영가대 등을 그리지 않고 임진왜란 당시의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화면아래에 있는 이 외성의 성문은 현실적으로는 성 밖으로 돌출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그려져 감상자의 시선을 의식한 작가의 의도로 생각된다.(그림22,23)

부산진성의 남문에는 흑의장군으로 불리는 鄭撥(1553~1592)장군의 지휘하에 군사들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수의 왜군과 격전을 벌이는 부산진 군사들의 장렬함을 강조하기 위한 듯 성을 지키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고 성의 내부는 비어 있는 양상이며 화면의 1/2은 배를 타고 격진하는 왜군들과 성으로 돌진하여 성루에 배치된 군사들의 화살에 우후죽순 쓰러지는 왜군의 시체들로 꽉 차 있다.(그림24) 여기서도 전쟁의 치열함과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부산진 군사들의 장엄함을 강조하는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염이나 원근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나 경물의 묘사방식 등의 차이로 미루어 변박본이 증가소장본보다 시기적으로 후대에 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길자, 2000, 앞의 논문, 156쪽.

<sup>65)</sup> '輪山 在府北八里...官奴山 在府東一里...馬鞍山 在府北三里...弄珠山 在府南文外...' 『東萊府誌』 九 山川『港都釜山』제1호,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2, 100쪽

원산으로 갈수록 윤곽선 없이 선염으로만 묘사하는 산수표현은 화보풍을 벗어나 진경산수의 영향도 감지되며, 성의 뒷산은 가는 윤곽선과 굴곡을 나타내는 선염의 효과를 주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성안의 건물들은 墨色과 朱色, 白色, 綠色으로 단정하면서 화려하게 표현하였으며 화면내의 수목들은 담채와 점묘법으로 울창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왜선 사이의 선염표현, 반복되는 선으로 처리된 파도, 담채의 가는 선으로 그린 돛대 등에서는 세밀한 경물묘사의 특징도 보여준다. 그런데 성곽의 묘사와 문루의 표현에서는 다소 평면적으로 역원근법적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 고식적인 성격도 보이지만, 객사 바닷 표현이나 기와 처마부분의 모아진 세선 표현 등에서는 원근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산수표현이 아닌 다양한 종의 나무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산수기법이나 선염, 원근법의 표현 등 18세기의 회화적 특징을 감지할 수 있다.

인물표현 역시 <동래부순절도>에서와 유사한데, 대동소이한 표정을 한 왜군의 대부분은 의외로 해학적인 인상이 강하다. 장엄하고 엄숙해야 할 결투장면에서 왜군들을 다소 희화화시킨 것은 충의로서 순절을 선택한 동래 군민들의 비장한 모습과 대별하여 왜군들을 비하시킨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도화서차견화원과 달리 재지화원이 가진 시각적 자유로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6)</sup> 두 순절도에서는 16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충실히 고증하고 그 배경이 되는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치열하고 장엄했던 사건의 재현과정에 있어서는 18세기에 서사적으로 읽히고자 하는 화가 특유의 시선과 화풍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

## 2. 초량왜관도 및 기타

1763년 통신사행을 수행한 것이나 1781년 수성별장을 역임하면서 왜인들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예로 보아 변박은 일본어에 능했고 통신사행이후에 왜관과 관련된 임무를 맡아 왜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관

<sup>66)</sup> 이훈상은 지방과견화원이 지방에서 작품을 제작할 때에서도 중앙중심의 시선으로 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 관해 필자는 수령의 통치하에 있는 재제화원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훈상이 지방사회기록화의 특징으로 간주한 화가의 의도적 재배치는 재제화원의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훈상, 2007, 앞의 논문 참조. 그런데 필자는 재지화원의 지방 제작화에서 보여지는 화가의 자유로운 구도설정과 경직되지 않은 인물의 해학적 표현 등은 중앙의 규범화되고 절제된 화풍과 물리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풍물패나 판소리 등 각 지역의 자유분방한 놀이문화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도> 역시 앞의 두 순절도와 마찬가지로 동래부가에서 주도하여 왜관을 다스리기 위해 제작한 관수회화로 일목요연한 회화식지도의 한 양식을 보여준다. 왜관도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그 양쪽에 동관과 서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남쪽과 동쪽은 바다에 접해 있다. 왜관 밖으로는 연향대청과 성신당, 빈일헌, 초량객사, 복병막, 설문 등 조선측 건물을 배치하였다. 이 작품은 왜관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조감도식으로 그린 그림으로, 무려 56개의 건물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sup>67)</sup> 그 배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동·서관의 증축이 이루어지던 왜관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왜관주변에 묘사된 나무들은 정선의 수지법을 반영하고 있어 진경산수화풍과의 영향관계를 생각할 수 있으며, 『朝鮮書畫傳』에 변박을 평한 ‘新朝鮮畫山水’는 정선의 화풍으로 해석가능하다.<sup>68)</sup> (그림25,26) 앞선 순절도에서 보여지는 산수의 사실적 묘사기법이 진경산수화풍으로 완숙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왜관 건물들의 배치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실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진경산수화풍이 동래부를 거점으로 활동한 변박의 작품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정선화풍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이 <왜관도> 작품은 현재 전하는 왜관도로는 가장 정밀한 그림이며 회화식지도로도 가장 일목요연한 그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그의 서예작품으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래부 동헌대문의 현판인 <東萊獨鎮大衙門>(1765)과 동래성남문밖에 있던 木橋를 石橋로 바꾼 것을 기념하여 세운 <四處石橋碑>(1781)가 있다.

<四處石橋碑>는 화강석의 재질로 높이 130cm, 폭48cm, 碑臺石이나 加檐石이 없이 碣의 형식을 취하여 碑 머리가 잡다한 장식이나 의장성을 배제하면서도 단정하고 비문도 修辭를 피하여 간결하며 글씨 또한 예서로 엄정한 매우 실용적인 작품이다. 碑陰, 碑側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으며 碑陽에만 비문

67) 김동철, 2003, 앞의 논문, 69쪽.

68) 이원식은 『增訂考畫備考』에서의 琢山을 변박을 보았고 홍선표는 신조선산수를 진경산수화풍으로 보았다. 홍선표, 1979, 『17·18世紀의 韓日間繪畫交涉』, 『考古美術』143·144호, 30쪽.

69) 진경산수화풍의 지방 확산은 여러 경로로 유추해볼 수 있다. 크게는 제작주체에 의한 직접 전파와 작품 객체의 의한 간접적 전파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전자의 경우는 김윤겸의 소촌도찰방, 정선의 하양현감, 김홍도의 안동 안기도찰방 등 도화서화원의 지방직 근무와 화사군관(도화서차견화원)으로 지방군·감영의 파견근무 등이 그 대표적 사례로 작품의 제작자가 직접 지방에서 회화활동을 통해 화풍을 전파시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진경산수화풍 작품의 지방유입으로 인한 전파로 문무관의 외관직 파견 시 소장품이나 선물, 중앙인사와의 시서화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자는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재지화원의 연구에 있어 중앙의 화풍을 수용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앙과 지방 화풍의 상관성 및 상이성을 인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며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새겨져 있다. 碑陽에는 頭篆으로 ‘四處石橋碑’라 철타하고 그 아래 종으로 7행 142자가 예서로 새겨져 있다. 各行은 25자를 기준하였으나 4행에서 府伯 李文源은 대두하여 行을 바꾸었고 역시 같은 줄에 李文源을 지칭하는 ‘候’도 1字 空格으로 처리하였다.<sup>70)</sup> 비문은 전 성균관전적 洪愼이 짓고 글씨를 변박이 썼다.

府의 南門밖에 나무다리 4곳이 있었다. 이들은 1-2년만에 한 번씩 고쳐야만 하는데 그 비용을 백성에게 거두었기 때문에 민폐가 심하였다. 이에 嘉善 姜謂聖이 발의하여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고쳐야 한다고 하자 모든 사람이 호응하였다. 이리하여 朴東裕, 朴師仁 등 4-5명이 境內에 연고를 따라 돌아다니면 모금하여 이 돈으로 산에서 돌을 채굴하였다. 이에 府使 李文源이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고 돌을 운반토록 하여 다리를 완성시켰다. 다리가 완성되자 백성들은 부사의 德을 칭송하고 이를 돌에 새겨 뒤에도 잊지 않게 하였다. 오늘날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고쳐 백성들이 영구히 편리하게 되었기에 이와 같이 적어 기념한다.<sup>71)</sup>

위의 비문 내용은 석교개축이 자신의 녹봉을 보태어 추진할 만큼 이문원이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 본부의 사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글씨는 아담하고 잡기가 없이 단정한 편이다. 통신사행 때 보여준 빈잡하지 않고 깔끔한 작화방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5> 卞璞의 官需繪畫 作品目錄

	시기	작품명	종류	상태·크기	소재지	款記	款印	비고
1	1760	東萊府殉節圖	畫	絹本彩色 145×96cm	육군박물관			보물 제392호
2	1760	釜山鎭殉節圖	畫	絹本彩色 145×96cm	육군박물관			보물 제391호

70) 서예작품에 관해서는 양맹준 외, 2001, 『四處石橋碑』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성현이나 왕이 아닌 경우에 대두법이 준용되는 것은 예가 드물며 私家 문서에서 시조나 간찰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용되기도 하나 공용의 비에서는 다소 僭濫하여 잔존예가 극히 희소하다고 한다.

71) 府之南門外有木橋四處每一二歲一改而費出於民病之久  
 矣嘉善姜謂聖發謨言宜改以石人皆善之遂與朴道裕朴師仁  
 等四五人赴緣境內轉勸募財以代石于山  
 府伯李後文源損俸俾卽盡運橋卽成民頌 候之德請紀于石  
 且冀後之念今隨地輒改使斯民永賴焉故迺書如此  
 崇禎三辛丑三月 日前成均典籍洪愼猷記 緣募 金秀泰  
 幼學卞 璞書 秋遇堅

	시기	작품명	종류	상태·크기	소재지	款記	款印	비고
3	1764.3	松下虎圖	畫		일본 辛基秀	述齋	述齋	寶曆十三年三月相州大越宿御書休之節朝鮮人上□官畫之『靑丘學術論集』21집, 2002, p.70
4	1764 (추정)	墨竹圖	畫		일본 李元植	朝鮮國荊齋	成之	『大系朝鮮通信使』7권, p.82
5	1764 늦여름	題淸見寺用前韻	詩		일본 시미지시교淸水市 세이켄지淸見寺	歲甲申暮春東華述齋卞璞琢之走稿	述齋 卞璞 琢之	五言律詩
6	1765 겨울	東萊獨鎖大衙門	書		부산 금강공원	歲乙酉冬書	卞璞	부산시유형문화재 5호
7	1779 초여름	柳下馬圖	畫	53.1×27.8cm	일본 타카마즈시 高松市 호넨지 法然寺	歲己亥初夏東華述齋寫	述齋	『大系朝鮮通信使』5권, p.59
8	1781.3	四處石橋碑	書		부산박물관	歲禎三辛丑三月日幼學卞璞書		부산시 기념물 제 52호
9	1783 여름	倭館圖	畫		국립중앙박물관	倭館圖 歲癸卯夏寫	述齋 卞璞	
10		臨水雅集圖	畫	지본수묵 28.2×38.7cm	국립중앙박물관		卞璞	

## V. 맺음말

조선시대 도화서에서 궁중수요의 회화를 담당하였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회화적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이를 담당할 화원의 존재가 요구되었다. 궁중화원의 경우 정조년간부터는 기능적으로 제작층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화서 화원과 규장각 자비대령화원으로 분화된다. 18세기 도화서 화원을 지방으로 파견하는 법제개편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지방에서도 구조적으로 파견화원과 재지 화원이라는 제작층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화원들의 대표적 업무인 기록화의 경우 궁중과 지방에서 제작된 그것들의 차이는 기록화를 제작하는 감상자의 상이함과 그것이 생산되는 목적과 방법론의 차이에 의해 결과물로서의 작품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추게 된다.

예컨대 궁중수요의 기록화[宮需記錄畫]는 교본[儀軌]과 범례에 따라 훈련된 화원에 의해 규칙적이고 의례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지역성이나 사회성, 개별성과는 거의 무관한 편이며 전통적이고 규범적이며 보수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작품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하였느냐’ 보다는 ‘얼마나 예법과 규범에 충실하게 표현되었느냐’가 평가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수요의 기록화[地方官需記錄畫]는 지역사회와 관계 속에서 제작됨으로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내용전달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규범과 의례를 중시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도상으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였다. 강조와 생략, 구성을 부각시켜 연극적 요소를 극대화하고, 단순한 내용의 전달을 넘어서 일반인들을 이해시키고, 감동을 전달하며 교훈적 메시지까지 각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풍속화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재지화원에 의해 제작된 기록화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재지화원은 그 지역토착인물로 그림에 능한 자로 주로 지방관청에서 무임직으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병행하는 화원을 지칭한다. 18세기 동래부의 재지화원이었던 변박은 동래부의 여러 관수회화를 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임진왜란 당시 순절의 역사를 그린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이다.

변박의 두 순절도는 충절의 역사적 진실과 비장함, 왜인들에 대한 희극적 요소가 복선으로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전쟁 당시의 치열함과 전쟁후의 평화로움이 동시에 화면에 암시적으로 그려져 있다. 최후까지 결전에 임한 후 의연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忠義’의 상징으로서의 송상현과 죽음이 두려워 혼비백산도 망가는 ‘非忠非義’의 상징인 좌병사 이각의 대조적 배치,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는 동래군의 화살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후죽순 쓰러지는 왜군들의 회화화된 표현, 성벽에서 장군의 지휘 하에 일제히 활을 쏘는 사수들의 여유로운 표정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18세기에 그려진 것이지만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을 충분히 고증하고 동래부의 16세기 당시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묘사함으로써 기록화적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왜관도>는 동래부사의 교린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왜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왜관내의 현황과 변동사항을 도상으로 설명 가능케 한 그림이다. 또한 <동래독진대이문>과 <사처석교비>의 제작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관수회사 제작에 있어서는 당시 양반에서 담당하였던 현판, 주련 등도 필력이 뛰어난 화가들에게 다소 일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앙 회화와 지방회화를 이어주는 소통자는 중앙에서 파견되어온 도

화서 화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궁중의 규범과 중앙의 화풍을 지방에 전파시킴으로서 지방의 화풍에 융화되는 양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재지화원의 경우 지역토착인물인데다가 도화의 기초단계부터 중앙의 화풍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갖추기 어려움으로 작품의 완성도와 구성력에서는 중앙의 화풍에 비해 그 격이 떨어질지 모르나 근무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징을 간과하여 정확한 시각적인 고증을 함에 있어서나 규칙화된 범주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화풍을 구사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재지화원에 관한 연구는 지방의 회화제작자라는 1차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중앙에서 파견되는 도화서차견화원과 더불어 지방회화제작자의 이원화양상을 이루는 구도를 결정하게 되며, 지방화풍이 형성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지방화원 연구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부족하나마 문헌을 통해 살펴본 재지화원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대표적 재지화원으로서의 변박의 관수회화활동에 관한 고찰은 이후 조선시대 재지화원의 체제와 역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연구에 작은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사료에 주로 의존한 재지화원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재지화원과 그 작품의 발굴을 통해 추후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화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화서차견화원과 상관계, 나아가 중앙의 화풍이 지방에 확산되는 양상 역시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재지화원에 관한 개념규정과 방법론적 접근에 관한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양명준 부산시문화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 투고일 2008년 7월 19일 |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9일 | 게재확정일 2008년 8월 22일 ■

## 참고문헌

### 사료

『東萊區誌』, 1995, 釜山廣域市 東萊區.

『東萊邑城 西將台.望月山頂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1979, 東亞大學校博物館.

『東萊府事例』, 釜山史料叢書1, 1963.9,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接待倭人事例』, 釜山史料叢書2, 1964.9,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東來府啓錄』(上), 釜山史料叢書3, 1964.6,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東來府啓錄』(下), 釜山史料叢書4, 1964.6,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東萊府先生案』, (東萊府誌官案, 英祖16年 府使 朴師昌編)1963.6, 『港都釜山』제2호, 427-436쪽.
- 『(國譯) 東萊府誌』 題詠雜著篇, 2000, 東萊文化院.
- 『東萊史料』
- 『東萊府邑誌』
- 朴師昌 編, 『東萊府誌』, 英祖16年(1740), 『港都釜山』, 第一號, 1962, 釜山市事編纂委員會.
- 『東萊誌』, 東萊誌編纂委員會, 1983, 東萊誌編纂委員會.
- 『東萊鄭氏校書郎公派世譜』, 1994, 東萊鄭氏校書郎公派譜所.
- 『東來鄉校誌』, 東來鄉校 編纂委員會 [編], 東來鄉校, 1997.
- 『東萊鄉土誌』, 1993, 釜山直轄市東萊區 문화공보실 편집.
- 『釜山府史原稿』, 1984, 민족문화.
-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昭和五年(1930), 彩壺會.
- 『倭人求請瞻錄( I )』, 2004, 釜山廣域市事編纂委員會.
- 趙職, 『海槎日記』, 1974, 민족문화추진회.
- 『草溪密陽卞氏大同譜』, 1987.
- 『韓客人相筆話』

#### 단행본 및 도록

- 『부산의 문화재』, 1993, 부산직할시.
- 『釜山の 歷史와 文化』, 2002, 釜山博物館.
- 序後孫 宋榮震, 『礪山宋氏知申公派譜』, 1957, 扶餘恩山 花溪精舍 刊行
- 『육군박물관도록』, 1996,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朝鮮時代 風俗畫』, 2002, 국립중앙박물관.
- 『(特別展觀)朝鮮通信使』, 1985(昭和60), 東京國立博物館.
- 安輝濬, 邊英燮 編著, 『藏書閣所藏繪畫資料』, 1990,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 『清見寺綜合資料調查報告書- 清見寺史料調查報告一』, 1997, 靜岡縣教育委員會.
- Sin, Ki-su, Nakao, Hiroshi『(大系)朝鮮通信使』, 1993, 東京: 明石書店.
- 강관식, 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규장각 자비대령화원을 중심으로  
돌베개.

- \_\_\_\_\_, 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하)-규장각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제 자료의 분류색인, 돌베개.
- 나카오 히로시, 1993, 『朝鮮通信使の軌跡 : 増補, 前近代の日本と朝鮮』, 東京 : 明石書店.
- 閔善姬, 1993, 『朝鮮後期 東萊의 鄕班社會와 武廳: 朝鮮後期 鄕班社會의 支配構造와 社會移動 問題에 대한 一試論』, 부산: 東亞大學校.
- \_\_\_\_\_, 1993, 『朝鮮後期 東萊의 鄕土社會와 武廳』, 『역사학보』139집,
- \_\_\_\_\_, 1995, 孫淑景, 李勛相 編著,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 부산: 釜山教會史研究所.
- 박정혜, 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 서인화 윤진영, 2001, 『조선시대 연회도』, 민속원.
- 孫承喆,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 辛基秀, 2000, 『圖說 朝鮮通信使の旅』, 明石書店.
- \_\_\_\_\_, 2002, 『朝鮮通信使往來 : 江戸時代260年の平和と友好』, 明石書店.
- 신유한·강재언, 1999, 『海游錄 : 朝鮮通信使の日本紀行』, 平凡社.
- 오세창, 한국미술연구소 역, 1998,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
- 李元植, 1997,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 \_\_\_\_\_, 1991, 『朝鮮通信使』, 민음사.
- 李勛相, 1981, 『椽曹龜鑑의 編纂과 刊行』, 서강대학교대학원.
- \_\_\_\_\_, 1990, 『朝鮮後期の 鄕里』, 一潮閣.
- \_\_\_\_\_, 1992, 『鄕吏의 歷史書 椽曹龜鑑과 그 續編을 編纂한 尙州의 鄕吏 知識人 李明九 家門과 그들의 文書』, 西江大學校.
- 鄭成一, 2000,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 秦弘燮 編著, 1998, 『韓國美術資料集成』(6) 朝鮮後期 繪畫論, 一志社.
- 하우봉·홍성덕 역, 1998,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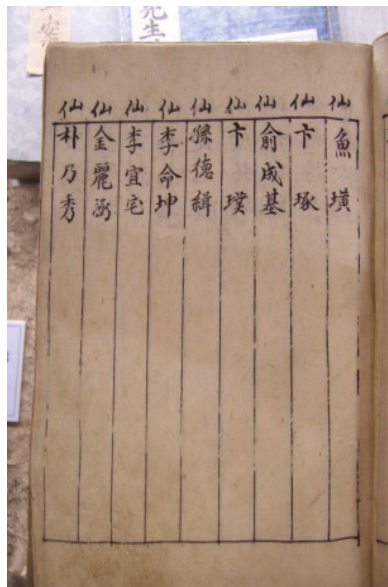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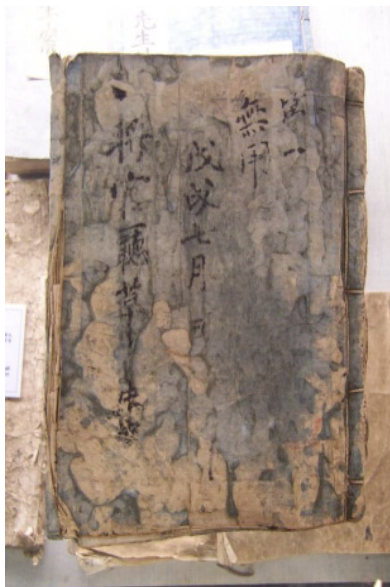
- 姜寬植, 1994.10, 『朝鮮後期奎章閣의 差備待令畫員制』, 『濶松文華』47, 韓國民族美術研究所, 50~97쪽.
- \_\_\_\_\_, 1995.10, 『眞景時代後期 畫員畫의 視覺的 事實性』, 『濶松文華』49, 韓國民族美術研究所, 49~108쪽.
- \_\_\_\_\_, 1997.6, 『朝鮮末期 奎章閣의 差備待令畫員』, 『美術資料』第58號, 國立中央博物館, 102~137쪽.

- 강재연, 2000, 『1764年度(英祖40) 朝鮮通信使의 日本使行에 對하여』, 『亞細亞文化研究』4집, 경원대학교, 亞細亞文化研究所, 中國中央民族大學, 韓國文化研究所, 33~42쪽.
- 金義煥, 1985, 『趙巖이 본 18세기 후반기의 日本社會와 韓日關係 - 그의 『海槎日記』를 中心으로』, 『玄岩 申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80~183쪽.
- 金芝英, 1994, 『18세기 畫員의 활동과 畫員畵의 변화』, 『한국사론』32, 서울대 국사학과, 1~68쪽.
- 권소영, 2003, 『육군박물관 소장 『東萊府殉節圖』 연구』, 『사서화류 특집』학예지 제10집, 육군박물관, 1~46쪽.
- 김경숙, 1995, 『18세기 조선통신사 製述官 및 서기의 문학세계-서얼의 신분과 문학관을 통해』, 『濫知論叢』1집, 온지학회, 109~155쪽.
- 김동철, 2000,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와 부산의 譯官 건물』, 『港都釜山』제16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347~384쪽.
- \_\_\_\_\_, 2003,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Vol.19, 한일관계사학회, 47~71쪽.
- 閔善姬, 1993, 『朝鮮後期 東萊의 鄉村社會와 武廳』, 『역사학보』139집.
- 안희준, 1988, 『朝鮮王朝時代의 畫員』, 『韓國文化』9,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47~177쪽.
- 유봉학, 1989, 『조선후기 풍속화변천의 사상사적 검토』, 『濶松文華』36, 韓國民族美術研究所, 43~62쪽.
- 유홍준, 1995, 『조선시대 기록화, 실용화의 유형과 내용』, 『예술논문집』, 예술원.
- 유송옥, 박금주, 1992, 『동래부사접왜사도병에 (東萊府使接倭使圖屏) 나타난 지방관아의 복식』, 『人文科學』22권,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5~166쪽.
- 윤용출, 2004, 『조선후기 동래부의 축성논의』, 『부산지역연구』제10권, 부산지리연구소, 13~25쪽.
- 이미야, 1990, 『18세기 조선후기 진경산수-부산지방을 중심으로-』, 『부산시립박물관 연보』13집.
- \_\_\_\_\_, 1993, 『釜山·慶南地域 書畫家에 대한 一考察』, 『박물관연구논집』2, 부산시립박물관, 207~214쪽.
- 이원균, 1992, 『朝鮮後期の 釜山倭館에 대하여』, 『부산수산대 인문·사회과학논문집』48집.
- 李元植, 1978,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通信使の 遺墨について -遺蹟目録-』, 『朝鮮

學報』88집.

- \_\_\_\_\_, 1999, 「韓日善隣外交와 朝鮮通信使」, 『史學研究』58,59호, 1999, 한국사학회, 849~857쪽.
- 李進熙, 1987, 「釜山浦를 그린 朝鮮朝時代의 그림에 대하여」, 『崔永禧선생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 이태호, 1998, 「朝鮮時代 지도의 繪畫性」, 『한국의 옛 地圖』(資料篇), 139~147쪽.
- 이훈상, 1982, 「椽曹龜鑑의 編纂과 刊」, 『震檀學報』53·54.
- \_\_\_\_\_, 1990, 「朝鮮後期の 郷吏」, 『人文研究』專刊 第27輯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一潮閣.
- 정길자, 2000, 「송상현 공 종가소장 東萊府殉節圖 研究」, 『대학발전연구 논문집』 제20집, 부산경상대학.
- 정한기, 2000, 「『일본장유가』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 연구-『해사일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25권,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253~288쪽.
- 池内宏, 1936, 「東萊의 安樂書院과 釜山東萊二城 陷落圖」, 『靑丘學叢』26.
- 최영희, 1976, 「정선의 동래부사접왜사도」, 『미술사학연구』129.130권, 한국미술사학회, 168~175쪽.
- 許善道, 1963, 「殉節圖와 民族正氣」, 『國防』제133·134호.
- \_\_\_\_\_, 1988, 「壬辰倭亂 東萊(釜山)에서의 여러 殉節과 그 崇揚事業에 대하여 (上)- <釜山鎭殉節圖> <東萊府殉節圖> 및 <釜山鎭·多大鎭殉節圖>를 중심으로」, 『한국화논총』10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홍선표, 1979, 「17·18世紀의 韓日間繪畫交涉」, 『考古美術』143·144호, 22~46쪽.
- \_\_\_\_\_, 1989,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전기까지의 미술 ; 『동국여지승람』의 회화 관계 기록」, 『강좌 미술사』, Vol.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_\_\_\_\_, 1995,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Vol. 205, 한국미술사학회, 5~19쪽.
- \_\_\_\_\_, 1997,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11호, 미술사연구회.
- \_\_\_\_\_, 1998,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畫員의 繪畫活動」, 『미술사논단』, Vol.6, 187~204쪽.
- 홍성덕, 1990,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16권, 2호.
- \_\_\_\_\_, 1999,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11권.
- 井手誠之輔, 2005.5.7, 「寧波仏畫의 多樣性 ひらく」, 佛教美術학술심포지움,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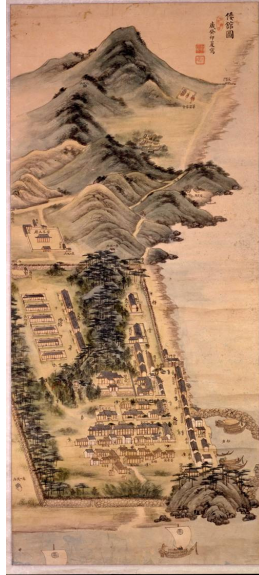
참고도판



<그림 1,2> (좌,우) 『將官廳先生案』 정조2년:1778년 '戊戌七月日 將軍廳草改案'



<그림 3> (좌)卞璞, <東萊府殉節圖>, 1760년, 紙本彩色, 145×96cm, 보물 제392호, 육군박물관  
 <그림 4> (우)卞璞, <釜山鎮殉節圖>, 1760년, 紙本彩色, 145×96cm, 보물 제391호, 육군박물관



<그림 5> 卞璞, <倭館圖>, 1783년, 133.0× 58.5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6> (좌) 卞璞, <墨竹圖> 일본 李元植

<그림 7> (중앙) 卞璞, <柳下馬圖>, 1779년, 53.1×27.8cm, 日本 高松市 法然寺

<그림 8> (우) 卞璞, <柳下馬圖>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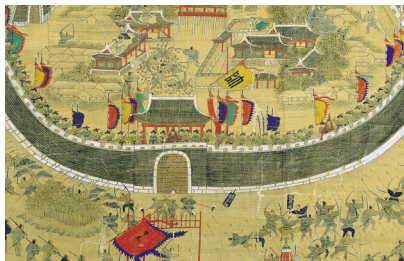
<그림 9,10> 卞璞, <東萊獨鎮大衙門>, 1765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호, 금강공원



<그림 11> 卞璞, <四處石橋碑>, 1731년, 부산시립박물관



<그림 12> (좌) 卞璞 <東萊府鎭節圖> 1760년, 紙本彩色, 145×96cm, 보물 제392호, 육군박물관  
 <그림 13> (우) <宋忠烈公 泉谷先生宗家收藏本 東萊府鎭節圖> 絹本彩色, 147.0×112.0cm,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3호, 개인, 청주고인쇄박물관 기탁보관



<그림 14> (좌) 번박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15> (우) 증가소장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16> (좌) 변박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17> (우) 종가소장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18> (좌) 변박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19> (우) 종가소장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20> (좌) 변박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21> (우) 종가소장본 <동래부순절도> 부분



<그림 22, 23, 24> (좌, 중앙, 우) 변박, <부산진순절도>부분



<그림 25, 26> 卞璞, <倭館圖>부분, 1783년, 133.0× 58.5cm, 국립중앙박물관

A Study of *Jaeji Hwa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Official paintings of *Byeon Bak*, a *Jaeji Hwawon* in *Dongraebu* district in the 18th century

Lee, Hyun-Ju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cope of official activities in drawing and painting among local painters who were in full swing by providing a general idea of a local painter (*Jaeji Hwa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understand the features in the works of *Byeon Bak*, a representative local painter who carried out the official duties in drawing and painting at *Dongraebu* district in the 18th centu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Court painter becam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types, which was a painter at *Dohwaseo* and *Jabidaeryeong Hwawon*, a selected Court painter for special task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Likewise, painters in the local district were divided into a dispatched painter from *Dohwaseo* and a local painter (*Jaeji Hwawon*) when the legislation for dispatching a painter from *Dohwaseo* or *Jabidaeryeong* to a local district came into effect in the 18th century.

A local painter, *Jaeji Hwawon*, is the person who performed official duties in drawing and painting at military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of his native places.

*Byeon Bak*, the local painter of *Dongraebu* district in the 18th century drew many military and administrative pictures while filling various government posts. His representative works such as <*Dongraebusungeoldo*: the documentary picture about defense of *Dongrae* Fortress> and <*Busanjinsungeoldo*: painting of defense of *Busanjin* Fortress> are describing the war scene at *Dongrae* Fortress at the time of Japanese Invasion in 1592 in which geographical location is clearly described and realistic and tragic war scenes are reflected. In his last work

<Weaguando>, *Byeon Bak* drew *Weaguan*, the center of a good-neighbor policy of *Dongraebu* district with a bird's-eye-view so that the disposition of *Weaguan* at that time can be analysed effectively. Moreover, his landscape painting followed the realism of landscape painting of *Jeong Seon*. This confirms the trend that *Jeong Seon's* brushwork spread extensively even in the local district. Judging from the cases of <*Dongraedokjindaeamun*: the front gate of *Dongraebu* district> and <*Sacheosukkyobi*: a stone monument>, there is somewhat the likelihood that making a hanging board and a verse couplet carved or written on a plank which is put on a pillar was left in the hands of a local painter who was good at brushstrokes.

Since *Jaeju Hwawon* was a native of the local districts and did not have an ideal environment that they could learn basic knowledge of painting, the quality of their works was somewhat behind from the aspects of depth and organization of paintings compared to the works by central painters. However, they were well acquainted with history and geographical features of their workplace so that they were in a better position to draw pictures in great detail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local style of painting through the division of a dispatched painter from *Dohwaseo* and local painter, the study of *Jaeji Hwawon* cannot be neglected. Theref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directed at finding a new *Jaeji Hwawon* and their work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dispatched painter from *Dohwaseo* and *Jaeji Hwawon*; and giving a close look at the spread of a central painting style to local districts.

Key Words : a dispatched painter from *Dohwaseo*, a local painter (*Jaeji Hwawon*), official duties in drawing and painting at military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Byeon Bak*, *Dongraebusungeoldo*, *Busanjinsungeoldo*, *Weaguando*, *Dongraedokjindaeamun*, *Sacheosukkyobi*